

11 2023 VOL. 329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한인회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 APLIKASINYA BARU TRANSAKSINYA SERUUU



Liveness  
Identification



Plus Account



Online  
Time Deposit



QRIS

Download sekarang



# Unleash the X in you.

## Hyundai STARGAZER X 출시



새로운 대시보드 디자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및 오토홀드



현대 블루링크  
(커넥티드 카 서비스)



현대 스마트센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 판매 및 서비스 문의: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 전담팀 대응)
- 가격 및 기타 상세내용 홈페이지 ([www.hyundai.com/id](http://www.hyundai.com/id)) 참조





# A LUXURIOUS HOME IN SOUTH JAKARTA

Located in the heart of south Jakarta with unrivaled views of this prestigious district, the residences are perfect for both business and leisure with its elegant one to three bedroom apartments and four bedroom penthouses, delivering an unprecedented lifestyle choice in the capital for short-term and extended stays.

The property is connected to the InterContinental Hotel Jakarta Pondok Indah, premium shopping malls, office towers and is strategically located within minutes to excellent healthcare facilities, international schools and a world-class golf course.

---

Contact us for more information and to schedule a tour  
T. 021 3950 7355 E. [sales.icjakarta@ihg.com](mailto:sales.icjakarta@ihg.com)



INTERCONTINENTAL.  
RESIDENCES JAKARTA PONDOK INDAH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 월간 한인뉴스 11 2023



표지: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음악회  
(2023. 10. 21)

###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 8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선두 프라보워, 바짝 뒤쫓는 간자르,  
떠오르는 아니스

## 11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음악회

## 14

재인니한인회, 재외한인구조단과  
업무협약 체결

## 15

동해연구회, East Sea 를 국제적으로  
Sea of Japan 과 병기되는 것을 목표로

## 16

[김재훈의 '세무 TALK']

면세 및 감면제도

## 18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 contents

2023. 11. 통권 329호

22

[여기가 맛집]  
KUSHIMUSUBI SACHI  
〈황지영〉

25

재인니한국봉제협회, 34주년  
한인봉제인 축제의 장 열어

26

죽음이 가까이 있기에 오늘의  
삶이 소중한 그곳 (2)  
〈양범은〉

32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3]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36

[서상영의 한방칼럼7]  
뇌졸중과 심장병(2)

39

[JKS 소식]  
수학을 만지고, 체험하고, 즐기자

40

[반려동물 랜선집사]  
‘난이’와 ‘순이’  
〈이윤채, 이윤진〉

42

[행복에세이]  
다시 비에 젖을 수 있을까?  
〈한지영〉

44

[반짝이는 그림책 이야기]  
나르시스적 사랑에 대처하는  
방법 〈김별님〉

47

한류 통합 상설 홍보관  
KOREA 360

48

인도네시아 한인공동체의 기록  
2020~2023(2)  
〈조연숙〉

53

해피피플, KT& G 복지재단과  
함께 보고르 아난다 초등학교  
신축교사 준공

54

‘KONNECT’ 예술품 기증식 개최

55

한-아세안 뮤직페스티벌,  
ROUND 2023

56

[루이사의 힐링 공간6]  
나에게 위로과 원동력을 준 존재들

58

김현경 솔로전시회를 다녀와서  
〈박승현〉

60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27)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5) 〈이승민〉

68

생활정보



[2024년 대선] 예측불가 3파전... 메가와티 vs 조코위 대리전

선두 프라보워, 바짝 뒤쫓는 간자르, 떠오르는 아니스



논설위원 신성철

내년 2월 14일 치러질 예정인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대선이 아직 3개월 반 정도가 남아있는 만큼 대선 레이스는 얼마든지 엇치락뒤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정치전문가들은 “역대 대선과 달리 예측하기 힘든 접전이 될 것” 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0월 19일 아니스 바스웨단(55) 전 자카르타 주지사와 러닝메이트 무하이민 이스칸다르(57) 국민각성당(PKB) 대표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같은 날 간자르 프라노워(55) 중부자바 주지사와 마푸드 MD(67)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이 정·부통령 후보등록을 마쳤다. 등록마감일인 10월 2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라보워 수비안토(72) 국방부 장관이자 그린드라당 총재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36) 솔로 시장과 함께 후보 등록을 해 주목을 받았다.

2024년 대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관전포인트는 킹메이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투쟁민주당(PDIP) 총재와 또다른 킹메이커 조코위 대통령의 대리전이다.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장녀인 메가와티는 투쟁민주당의 최고 권력자로 조코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해 두 번이나 당선시켰고, 이번 대선에서는 3연임이 불가한 조코위 대신에 간자르 중부자바 주지사를 후보로 지명했다. 내년 10월까지 임기를 수행할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임기 9년 동안 지지율이 70%를 상회할 정도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킹메이커로 자리매김했고 차기 대선 후보로 프라보워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는 조코위는 자신의 장남인 기브란을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세웠다.

조코위는 중부자바 솔로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자카르타주지사와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투쟁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었다. 조코위는 지난 대선에서 경쟁자였던 프라보워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 장남을 러닝메이트로 올리고 차남 까에상 빵아렙(28)을 인도네시아연대당(PSI)에 대표로 만들어 메가와티와 대립관계가 됐다. 두 킹메이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대선은 수카르노부터 이어지는 메가와티의 정치가문 대(對) 수하르토의 사위였던 프라보워와 손잡고 신흥 정치왕조를 만들어가는 조코위 가문의 대리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정치세력과 신정치세력 간에 결투라고도 말할 수 있다.

프라보워 후보는 2014년과 2019년 대선에 출마했지만 두 번 모두 조코위 대통령과 맞붙어 고배를 마셔 이번 대선은 3수째이지만, 2009년에 메가와티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경력을 넣는다면 4수째이다. 이번 대선은 프라보워의 나이로 볼 때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권토중래의 각오를 다지면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다. 프라보워는 조코위 2기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 인지도와 지명도를 한층 높였고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하르토의 정치 기반이었던 골카르당, 이슬람 성향의 국민수권당(PAN),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민주당 및 젊은 세대의 표를 겨냥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연대당(PSI)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프라보워 후보의 발목을 잡아온 역린이 있다. 그는 전략군사령부(Kostrad) 사령관이던 1998년 민주화 시위 당시 학생운동가 납치를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온 뒤 대선 때마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코위의 장남 기브란이 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헌재 판결에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인 안와르 우스만 헌재 소장의 개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은 대선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메가와티 총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간자르 후보는 투쟁민주당을 통해 정치에 입문해 2004년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13년 중부자바 주지사에 당선됐고 연임에 성공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하지만 자바 지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전국적인 지명도는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조코위 대통령과 같이 서민적이고 개혁적 도정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간자르의 러닝메이트인 마푸드는 청렴한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로 최대 이슬람단체인 나들라툴울라마(NU)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좌로부터 프라보워, 간자르, 아니스 후보

출처: detik.com

프라보워와 간자르 두 정치 세력이 경쟁하는 동안 아니스 후보는 꾸준히 근력을 키워왔다. 아니스는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의 지원으로 아후스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다. 학자 출신으로 자카르타 빠라마디나 대학 총장을 지낸 아니스는 자카르타 주지사 임기 동안 자카르타 교통 인프라 개선, 주택 확충, 홍수 예방, 녹지·인도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단체를 모체로 하는 PKB 무하이민 당대표와 짝을 이뤄 이슬람 표밭을 공략하면서 25%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이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많은 여론조사기관이 있지만 최근 ‘2024년 대선 당선가능성’ 조사는 대체로 프라보워 후보가 다른 후보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대선 후보 등록 다음날인 10월 26일 당선 가능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 여론조사기관 인디카또르 켈리텍 (Indikator Politik)에 따르면 프라보워-기브란 후보가 36.1%로 선두를 기록했다. 이어 간자르-마푸드(33.7%), 아니스-무하이민(23.7%) 순이다.

위와 같은 여론조사의 결과가 내년 2월 14일 벌어진다고 가정할 때, 대선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즉 내년 6월로 예정된 결선투표에서 탈락한 아니스-무하이민 후보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가 대선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니스 후보는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됐을 때 프라보워의 지지를 받은 빛이 있다. 하지만 프라보워를 지지하는 연립정당에는 그린드라당, 골까르당, 민주당, 국민수권당 등 당선된 후 만들어질 연립정부에서 지분을 요구할 정당이 적지 않다. 반면 투쟁민주당과 연립정당을 구성한다면 아니스로서는 적지 않은 선물을 기대할 수 있다. [끝]

#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음악회





#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음악회

한인과 인도네시아인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한 IK 윈드 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무대



**재** 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박재한)는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Indonesia Korean Wind Orchestra (IK 윈드 오케스트라)와 함께 10월 21일 오후 3시, 롯데몰 KOREA 360 에서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올 한해 진행되는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의 하나로 전훈 지휘자가 이끄는 IK 윈드 오케스트라(지휘자 전훈, 단장 김종규, 감독 김현진) 공연은 남녀노소 양국의 출연자 120명에 달하는 큰 무대로 관악기 특유의 웅장함과 스케일이 더해져 분위기를 압도했다. 인도네시아 곡과 한국 곡 외에도 모두에게 친숙한 클래식과 영화음악 등 다양한 곡들을 들려주어 관객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8세부터 65세에 이르는 70여명의 단원들이 자카르타와 씨카랑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IK 윈드 오케스트라'는 바람을 불어 소리를 내는 목

관악기와 금관악기, 타악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금요일 한인회관(Jl. Gatot Subroto 코리아센터 옆)에서 공연을 위한 연습을 해왔다.

전훈 지휘자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인도네시아 '단비학교(Danbi Bersinar)' 브라스밴드의 연주는 눈길을 끌었는데, 작은 입과 부풀린 볼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두드렸다.





한인이 재단설립이사인 ‘단비 버르시나르 학교’는 다양한 한·인니 문화, 교육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지원하는 등, 버카시 세뚜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적과 인종, 나이를 떠나 한인동포와 인도네시아인들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 소통하고자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롯데몰 GF층 오픈무대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펼쳐졌다.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소프라노 채영애(재인니 한인회 수석부회장)님의 원숙미 있는 무대는 고국의 가을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후원(무료대관) : 한국콘텐츠진흥원(KOREA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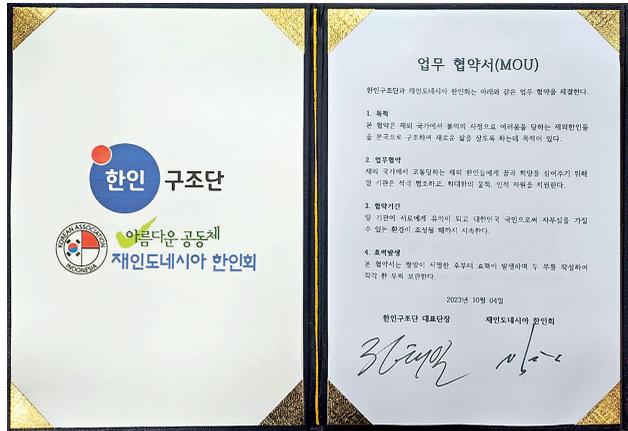
Indonesia Korean Wind Orchestra  
연락처 0877 7520 7183

#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재외한인구조단과 업무협약 체결



박재한 한인회장과 박호정 재외한인구조단팀장



2023년 10월 4일, 재인니한인회(회장 박재한)는 세계한인회장대회(롯데호텔, 서울)에서 사단법인 재외한인구조단(대표단장 권태일)과 어려움에 처한 재외한인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재외한인구조단은 사업실패나 건강악화 등으로 해외를 떠도는 한인동포의 한국으로 귀국을 돕고 한국정착을 위해 농장 등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한인구조단과 이들을 돕는 여러 네트워크가 그동안 어려운 상황의 한인동포들을 보호해온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권태일 대표단장은 “해외동포를 보호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기에 처한 재외동포의 귀국을 돕는 재외한인구조단이 보다 많이 알려져 동포사회에 더욱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해결책 도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인들을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2015년에 설립한 재외한인구조단은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 32개국의 한인 약500명을 구조하여 새로운 삶을 제공했다.

# 동해연구회, 동해의 영문 표기를 East Sea로 하고 국제적으로 Sea of Japan과 병기되는 것을 목표로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 동해연구회는 10월 18일 자카르타 한식당에서 국제적으로 일본해로 되어 있는 표기를 동해/일본해로 병기를 위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상덕대사를 비롯하여 대사관 직원들과 민주평통 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이세호 회장과 회원, 김종헌 한인회 수석부회장과 한인회 사무국, 자유총연맹 등이 참가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동해 수역의 일본해 ‘단독 표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해 ‘병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28년 전인 1992년 8월 제6차 유엔(UN) 지명표준화회의를 통해서이다.

최근 국제수로기구(IHO)가 한-일 양국에 최근 수역을 지칭하는 숫자로 된 체계(a system of unique numerical identifier)의 도입을 제안하여 끝없는 논쟁을 매듭을 지으려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제수로기구 차원에서 각각의 바다 이름은 사라지고 각 수역엔 숫자로 된 코드가 붙게 된다. S-23(해양과 바다의 경계) 4차 개정판에서 동해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둘러싼 한-일의 치열한 외교전이 길어지자, 갈등의 소지를 없

애기 위해 바다 이름을 숫자로 바꾸자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현재 디지털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도는 단연 ‘구글맵’이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언어로 접속하느냐가 다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구글맵에 접속하면 초기화면에 동해 수역은 일본해로 표기된다. 동아시아 쪽으로 지역을 좁혀 더 들어가야 비로소 ‘일본해(동해)’ 병기가 보인다. 유의상 전 외교부 국제표기명칭 대사는 “지명관련 국제기구에서 동해 명칭에 대한 회원국간 여러 이해관계로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운동은 구글 지도, 미국, 유엔(UN)을 3대 교섭 대상으로 삼아 설득력 있게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병기를 확산시켜나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한국이 동해 병기를 내세우면, 일본이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 공격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해연구회에 따르면 2002년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비율이 전 세계 지도의 2.8%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40%가 넘는다.

동해연구회는 19일,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데콕시에 있는 인도네시아대학(UI)에서 열린 ‘제29회 동해(East Sea) 지명과 바다 이름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진행했다.



(왼쪽부터)이상태 한국영토학회 회장, 주성재 동해연구회 회장, 유의상 전 외교부 국제표기명칭 대사





## 면세 및 감면 제도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인도네시아 조세의 특징중의 하나가 중간예납이 과도하고 원천세가 상당히 많은 편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에게 즉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소득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탈루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세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원천징수를 당하는 쪽에서는 그만큼 선납법인세가 발생되게 되는데, 초과 납부가 되어 환급으로 인한 세무조사의 부담이 있을 수 있기에 사전에 면세 및 감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사례 1) 원천세 관련 사례

A 업체가 B 업체에 Rent Car를 100원에 제공하였다고 할 경우 B업체는 렌터카 비용으로 100원 전액을 A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세 2%를 공제한 98원만 지급하고 B업체는 공제한 2원을 PPh23 항목으로 세금을 납부 및 신고하고 원천세공제내역서를 A업체에 전달하게 된다.

A업체는 원천세 공제 내역을 전달받은 후 향후 법인세 신고 시 선납한 법인세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받게 된다.

그런데 A업체가 납부할 법인세 보다 선납한 세금이 많다고 할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되어 법인세 세무조사 후 환급이 진행되게 된다.

### 사례 2) 년 매출액이 48억루피아 이하인 경우

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에 0.5%의 세금만 납부하는 Final Tax 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PPh4(2)에서 설명됨) 예로 A 업체가 연매출액이 48억루피아 이하인 케터링 업체인데 B업체에 케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할 경우 B업체는 원천세 2%를 공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5%만큼은 초과 세금이 발생하여 결산 후 법인세 신고시에는 환급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PPh23 면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SKB PPh 23 이 발급되며 원천징수를 면제 받게 된다.



사례 3) 물품 수입 시 선납법인세 (PPh22)를 납부하여 통관이 되는데 신설업체로서 결손이 예상되거나 이월 결손이 많은 업체의 경우 선납한 법인세가 환급이 발생된다. 이런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PPh22 감면 또는 면제 승인(SKB PPh22)을 받을 수 있다.

사례 4) 법인세 중간 예납(PPh25)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작년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12로 나누어 매월 중간 예납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당해 년도에는 작년만큼의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결국 초과 납부가 되어 환급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과세 연도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납세자는 해당과세연도에 납부할 법인세가 75% 미만인 경우 관할세무서에 중간 예납(PPh25)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듯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 환급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 승인하에 면제 또는 감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부가세도 감면 또는 면제 승인이 가능한데 기계 설비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부가세 11%를 납부하여야 통관을 할 수 있으나 사전에 관할세무서에 자본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승인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겠다.

이런 면제/감면 제도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사항인데 초과 납부에 대해서 사전에 면제/감면을 받느냐, 초과 납부 후 환급을 받느냐의 관점이라 하겠다.<끝>

<정치, 사회>

## “프라보워, 인권침해 혐의 털고 대통령 될까?”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수하르토 정권 말기에 일어난 인권침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라보워는 수하르토 정권 말기에 행한 인권침해 논란은 정치인이 된 후 그를 괴롭혀 왔고, 결정적으로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고배를 마시는 주된 원인이 됐다. 2024년 대선에 출마한 세 명의 후보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라보워는 원내 3위 정당인 그린드라당(Gerindra, 대인도네시아운동당)의 총재이자 현 국방부 장관이다. 또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퇴역 군 장성이다.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프라보워는 지난 18일 남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민주화 운동가 단체인 ‘98형제단’ 과 회의를 개최했다. 98형제단은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를 마친 후 프라보워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98형제단의 대표인 와힙 탈라오후는 “프라보워 씨와 회담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미래에 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미래를 건설하려면 과거를 뒤로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프라보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싸울 것” 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와힙은 자카르타포스트에 특별히 프라보워의 선거 운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98형제단을 결성했다고 말했다. 와힙에 따르면, 98형제단은 약 1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고, 회원 중 다수는 1988년 5월 수하르토 전 대통령과 그의 신질서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학생단체의 설립자 또는 회원이었다.

와힙은 어떠한 법정에서도 프라보워에게 인권침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98형제단은 프라보워가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98형제단의 단원들이

프라보워가 누산타라 수도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사업을 이어갈 진실하고 비전을 가진 지도자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프라보워는 98형제단의 지지를 환영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마침내 두 반대 세력이 손을 잡은 ‘역사적인 순간’ 이라고 말했다.

### 프라보워의 민주화 운동가들 납치 혐의

프라보워 후보가 육군정예부대인 전략군사령부(Kostrad) 사령관이던 1998년 민주화 시위 당시 학생운동가 납치·살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 받았다. 1998년 민주화운동 당시 프라보워가 그의 장인이었던 수하르토 대통령이 집권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라보워는 이 사건이 납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프라보워는 회고록에서 자신은 활동가들을 감금하지 않았고, 이 작전을 수행한 특수작전팀인 장미팀(Tim mawar)도 자기 대원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미팀의 대원 중 일부는 민주화 운동가 실종과 관련된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다. 프라보워는 민주화 운동가들 납치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것은 없지만, 이 사건은 그의 정치 경력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계속 발목을 잡아왔다.

2014년 대통령선거에 프라보워가 출마했을 때, 온라인에 유출된 군의 문서에는 군 내부 협의회가 1998년 8월 21일에 그를 불명예 체대시킨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민주인사 납치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그동안 프라보워는 당시 납치를 당했던 민주화 운동가 중 일부를 그린드라당에 입당시키는 등 자신의 권력 남용 혐의를 지우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였던 부디만 수жат미코(Budiman

Sudjatmiko)가 최근 프라보워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중부자바 스마랑에서 프라보워-부디만 연합(Prabu) 지지자 단체를 결성했다. 정치분석가 우장 코마루딘(Ujang Komarudin)은 프라보워와 98형제단의 만남은 신중하게 계획된 선거 전략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이것은 과거 혐의를 가지고 프라보워를 공격하는 것을 종결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프라보워와 1998년 활동가들이 과거의 갈등을 해결할 좋은 기회가 이번

회의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국립연구혁신청(BRIN)의 피르만 누르 정치연구원은 “프라보워가 향후 인권침해 혐의로 인해 가해질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라고 말했다. 피르만은 그럼에도 인권유린 혐의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논란인 만큼 1998년 민주화 운동가들이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음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잔재가 일부 유권자들에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코위 팬클럽 ‘프로조’, 뿌라보워 후보에 충성 맹세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최대 정치인 팬클럽인 프로조(ProJo)가 2024년 대선 후보 뿌라보워 수비안또 국방부 장관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인도네시아 주요 정당에 버금가는 세력으로 성장한 프로조의 수뇌부는 지난 14일 자카르타 남부에 있는 뿌라보워 사택을 방문,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뿌라보워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프로조는 2014년과 2019년 대선에서 조코위가 당선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4월에 투쟁민주당(PDIP)이 대선 후보를 간자르 뿌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로 확정하면서 조코위 대통령과 투쟁민주당 간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프로조는 이날 조코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근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 까에상 빵아렘은 인도네시아연대당(PSI)에 입당한 직후 당대표가 됐고, 장남 기브란 라까부밍 수라카르따(솔로) 시장은 뿌라보워의 러닝메이트가 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투쟁민주당 수뇌부는 조코위와 기브란이 자당(투쟁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을 이용해 세력을 확대하는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뿌라보워 사저를 방문한 프로조 의장이자 정보통신장관 부디 아리 스티아디는 조코위 대통령이 뿌라보워 대선 후보와의 정책과 방침 등 노선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조 설립자인 부디는 지난 7월 조니 빨라떼 정보통신부 전 장관이 부패 혐의로 부패척결위원회(KPK) 기소된 직후 정보통신장관으로 임명됐다.

부디는 이어 “프로조는 2024년 대선 후보로 뿌라보워를 지지한다” 며 “인도네시아는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뿌라보워는 진정한 애국자이다” 라고 치켜세웠다.

이에 뿌라보워는 “국방장관으로 내각에 참여하면서 조코위 대통령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항상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라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조코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화답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지하는 2024년 대선 후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아이르랑가 하르파르또 골까르당 대표,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노 민주당 대표, 줄키펠리 하산 국민수권당(PAN) 대표, 유스틸 이자 마헨드라 월성당(PBB) 대표 등 뿌라보워를 지지하는 정당 대표들이 참석했다.

## 루피아/달러 가치,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루피아/달러 환율 가치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루피아/달러 환율 가치는 2020년 4월에 16,100 루피아를 기록한 이후, 지난 10월 20일에 최저 수준인 15,832루피아를 기록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지난 19일 환율 안정을 위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최근 들어 미국 달러 대비 자국 루피아화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이다.

BI는 통화 정책회의 후 기준 금리로 활용되는 7일 물 역환매채권(RRP) 금리를 5.75%에서 6.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이다.

페리 와르지요 BI 총재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루피아의 환율 안정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BI 능동적인 접근방식은 잠재적인 수입 인플레이션 영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BI의 목표는 2023년에 소비자물가 3%와 2024년에 2.5%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페리 총재는 미국 달러의 강세가 루피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 하락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을 인정했으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 인니,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3만명 석탄 노동자 정리해고

인도네시아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석탄 산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예고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EM)는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석탄 부문에서 약 3만 명의 노동자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해고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탈석탄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는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기간인 2022년 11월 15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사업을 의결했다.

JETP는 인도네시아가 에너지 부문에서 석탄발전을 조기 졸업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여러 선진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2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인도네시아는 석탄 생산 부문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6만 명의 석탄 광부를 고용하고



있고, 이 중 40%가 동부 칼리만탄 지역에서 집중적인 광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GEM의 지난 10월 보고서 <2023년까지: 글로벌 석탄 광부 및 정의로운 전환의 시급성>에서 “이러한 상황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 기간 동안 석탄 광부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인도네시아 JETP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라고 명시했다.

GEM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석탄 산업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며, 오는 2050년까지 약 100만 명의 정리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화석 연료 퇴출을 위한 세계 각국의 추가적인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기후변화 대응 강도가 높아지면

석탄 산업 일자리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GEM은 전 세계 석탄 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수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4,300개 탄광 관련 프로젝트를 조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석탄 산업에 종사하는 전 세계 노동자를 약 270만 명으로 추산했다.

##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GVC에서 소외돼… 무역 개혁 필요”

세계은행은 최근 인도네시아가 투자를 장려하는 법규정을 개선했지만, 제조업 부문을 저해하는 무역정책의 개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아디티야 마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가 수입과 수출 촉진을 위해 보다 다각적인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투는 “인도네시아는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며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의 하락세는 무역정책 개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은 GDP의 24.80%를 차지했지만, 2015년 20.84%로 줄어들었고, 이후 2022년에는 18.34%로 더욱 감소했다.

마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출용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회사를 언급하면서, “수출을 위한 수입”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법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또히드 아흐마드 원장은 수입이 제조업 부문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산품을 국내로 쉽게 가져올 수 있다

는 것은 국내 생산자들이 가치 사슬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제조업으로 발전하려는 의욕을 잃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경제연구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웬칭치 연구원은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 상품 수출 비중이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비해 낮다며, 이는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산업구조 때문에 막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에서 흔히 발생한다고 말했다.

웬칭치는 이어 무역정책의 개혁이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제조업을 성장시킨다면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라는 자원 부국이 자원의 수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다가 경제 침체를 겪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자유무역협정에 가입으로 관세가 대폭 인하되어 인도네시아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겠지만, 까다로운 무역 승인, 허가 요건 및 수출 가격 통제와 같은 비관세 조치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주요 무역 장벽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 Kushimusubi Sachi

황지영 (PT. Prime Freight Indonesia)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1월이 돌아왔네요. 자카르타도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본격적인 우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새해 인사를 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올해이네요. 누구에게는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는 후회로 마음 급한 한 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구에는 성취감과 여유로움으로 가득한 11월일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용한 곳へ 가서 좋아하는 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또는 혼자서 맛있는 음식 드시며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위기 좋은 이자카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식당은 Kushimubi Sachi입니다. 분위기 좋은 이자카야인데요. 일본 식당이 많이 몰려 있는 City Walk 몰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 마트인 파파야 마트도 있고, 일본 다이소도 있어서 식사하시고 둘러보시며 장 보시기에도 좋을 거 같습니다. 들어서면 기와와 풍등 등으로 인테리어가 되어있어 일본 느낌이 물씬 나실 겁니다. 자리는 일반테이블과 룸이 있고, 철판과 꼬치를 굽는 오픈 주방앞에 긴 스탠드바가 있는데요. 뭐니 뭐니해도 선술집(이자카야)에 왔으면 긴 스탠드바에 친구와 나란히 앉아야 제맛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그 자리로 선택했습니다. 자리 앞에 여러 가지 눈길을 끄는 맛있는 일본식 칵테일이 많이 있었어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아주 고민됐는데요. 그중 저는 귀여워 보이는 도라에몽 칵테일을 시켰습니다. 파란색 큐라소 칵테일인데 큐라소란 오렌지 향료의 술을 뜻합니다. 파란 칵테일에 도라에몽의 상징인 큰 방울이 달려서 나오는데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란색 리본이랑 같이 나오는 도라미 칵테일도 있었어요. 다음에는 도라미 칵테일에 도전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요리는 일본식 어묵꼬치입니다. 일본 오뎡바 처럼 안에 들어가는 어묵 꼬치 종류를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Daikon(10,000 루피아 ++), Mochi Kincyaku(22,000 루피아 ++), Satsuma age(24,000 루피아 ++) 이렇게만 주문했습니다. 다른 메뉴도 시켜야 했기에 저렇게 세 개밖에 안시켰지만 혹시 식사하고 이차로 오시는 분들은 좀 넉넉하게 시키셔서 사케랑 같이 드시면 좋을 거 같아요. Daikon은 무인데요. 저는 오뎡국물에 조리된 무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팡 터지는 무즙과 오뎡국물로 속이 너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Mochi Kincyaku는 유부주머니인데, 안에 특이하게 찹쌀 모찌가 들어있었어요. 아주 특이한 식감 이었습니다. 여기를 식사하시고 2차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오뎡탕 시켜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Kuroge Sumibi (250,000 루피아 ++)입니다. 흑우 와규 구이입니다. 벌써 이 메뉴 이름부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나요?

부드럽고 쫄깃하고 입안에서 녹았어요. 와사비, 머스타드, 후추, 소금, 그리고 일본식 유주 소스 이렇게 여러 가지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가 같이 나왔는데, 일단 처음에는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 후추, 소금에 찍어 드시다가 나중에 살짝 질리는 감이 있다 싶으시면 와사비나 머스타드와 함께 드시면 될 거예요. 저는 소고기 먹을 때 와사비랑 곁들으면 질리지도 않고 끊임없이 들어가더라구요. 맛이 없을 수 없는 이 흑우 와규 구이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여러 가지 일본식 꼬치 요리인데요. 이자카야에 왔으면 야키토리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저는 Momo Yakitori(18,000 루피아 ++), Shiitake Yakitori(20,000 루피아 ++), Kawa(16,000 루피아 ++), Okura Yakitori (20,000 루피아 ++)이렇게 주문 네 종류 주문 했습니다. Kawa는 닭 껍질 꼬치이고 Momo는 닭 다리 꼬치예요. 이자카야 왔는데 이 두 메뉴 안시키시는 분 있나요? 이 메뉴들은 시원한 맥주가 빠질수 없죠. 정신 차리면 어느 순간 맥주 더 시키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거예요. 육류만 먹으면 살짝 우리 몸에 죄책감도 드니 표고버섯과 오쿠라 구이도 시켰습니다.

오쿠라는 호불호가 많을 텐데요. 이렇게 비유하면 살짝 죄송하지만 씹으면 콧물 같은 진액이 끈적하게 흘러나와 싫어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그 식감이 좋아서 아주 좋아합니다. 이 끈적한 것은 펙틴이라는 물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펙틴은 장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 기름진 음식 먹을때 오쿠라 몇 개쯤 시키는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번째로는 Okonomi Yaki (65,000 루피아 ++)입니다. 오코노미야끼는 남녀노소를 불구 하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정말 힘들 텐데요. 한국에서 비슷한 것을 찾자면 부침개와 유사하겠네요.

밀가루를 가쓰오부시 우린 물에 개어 잘게 썬 양배추를 섞은 후 취향 따라 각종 재료를 넣고 지져 먹는 일본 요리인데요. 반죽 안에 생강초무침이 들어가 있어서 더 일본 현지식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메뉴 또한 맥주가 빠질 수 없는 메뉴이죠. 일식 드시고 있으니 시원한 샷포로 한잔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요리는 Cabage Salad (19,800 루피아 ++)입니다. 저는 일본요리 먹을 때 이 양배추 샐러드 없으면 너무 섭섭하더라구요. 김치처럼 꼭 찾게 되는 거 같아요. 이 집은 얇게 썬 양배추 채 위에 얇게 채 썬 튀긴 감자채가 올라가있고 위에 김가루가 살짝 뿌려져 있어서 짭조롭하고 고소함이 두 배였어요. 너무 기름진 고기만 먹으면 음식을 더 많이 못 드시는 거 아시죠. 이 샐러드 하나 시키시면 질리지 않고 여러가지 요리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과식은 몸에 안 좋지만요!

저는 벌써 맛집 탐방을 쓰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일 년이네요. 새롭다면 새롭고, 무료하다면 무료한 이 자카르타라는 도시에서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 달은 어떤 요리를 소개드릴까 고민 하면서 조금은 더 생산적인 일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인 뉴스 사이트에서 몇 분이 나 제 글을 읽어주시나 찾아보기도 하고, 그만큼 부담감도 조금 느끼기도 했지만, 제 일상은 매달 이번 달은 어떤 맛집을 찾아야 하나로 루틴처럼 굳어졌습니다. 맛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행복한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보내주시는 응원과 성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맛있는 맛집으로 저는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더 맛있는 맛집으로 12월에 배요.



### 식당 정보 : <Kushimusubi Sachi>

음식 종류 : 일식

가격대 : Rp 250,000-3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오전 11:00- 오후 22:00

주소 : Citywalk Sudirman Lt. 1 #F10,

Jl. K.H. Mas Mansyur, RT.10/RW.11

Karet Tengsin, Kecamatan Tanah Abang

Jakarta 10220

※ Google 참고



## 재인니한국봉제협회, 34주년 한인봉제인 축제의 장 열어

지난 26일 재인니한국봉제협회(회장:안창섭)는 다시 뿔 수 있을 거야! 라는 슬로건으로 34주년 한인봉제인 축제의 장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땅그랑소재 모던랜드CC에서 열렸으며 박재한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을 비롯해 송창근 KOCHAM 명예회장, 이강현 KOCHAM 회장, 이종운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봉제인이 모두 모여 힘 들고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함께 이겨 내자는 결의를 다졌다.

안창섭 회장은 한·인니수교 50주년 행사들을 무사히 진행하고 마친 박재한 재인니한인회 회장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비운 뒤 땅이 굳는다며 내년에는 더욱 더 좋은 일들과 다시 뿔 수 있는 KOGA가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자고 했으며 박재한 재인니 한인회장은 다시 뿔 수 있을 것이야라는 가슴 벅찬 슬로건대로 될 것이라며 어렵고 힘든 현실을 함께 견디고 이겨내자고 했다.

한편 34주년 한인봉제인 축제의 장 행사는 땅그랑에서 처음 열렸으며 땅그랑 KOGA 황원기 회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이 있었다.

재인니한국봉제협회는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기업중 34년의 오랜 전통으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끊임없는 도전과 꿰뚫어보는 근성으로 불황을 이겨왔으며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큰 기둥으로 그 역할을 해왔었다.

이번 34주년 한인봉제인 축제의 장 행사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더 도약하는 KOGA가 되자는 염원으로 회원사 모두가 한 목소리를 외치며 행사를 의미있게 장식했다.

그리고 힘차게 다시 뿔 수 있는 KOGA가 되리라 기대한다.



(제공: 재인니한국봉제협회)



Lolai 구름위의 마을 -출처; 구글이미지

지난 호에 이어

유량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 죽음이 가까이 있기에 오늘의 삶이 소중한 그 곳(2)

양범은 (헤리티지 6기)

다음날 새벽 우리가 향한 곳은 구름위의 마을 롤라이(Lolai). 태양이 구름바다를 비추는 듯한 풍광은 운이 좋아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역시 우리는 운이 좋았다. 손톱조각이 멀리 까만 배경에 가만히 떠 있던 새벽하늘은, 옅은 오렌지 빛이 까만 공간의 한가운데에서부터 서서히 가로로 가르더니, 어느새 잉크가 번지듯 주홍빛 섬광이 세상을 환하게 물들인다 섬광아래에 폭신하게 펼쳐진 구름바다가 따뜻하고 아늑하다. 불명인듯 숨명인듯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으니 나도, 상념도, 사라진다.

토라자 여행지의 대표 이미지로 등장하는 곳, 깨떼 깨수(Kete Kesu)로 향했다. 가장 오래되고 보존이 잘 된 똥꼬난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가이드 아루씨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다.

하늘로 솟은 처마가 하늘 아래 일렬 종대로 대비를 이루는 구도로 찍으면, 실제모습보다 훨씬 더 멋진 사진을 건질 수 있는 사진명소이기도 하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는 않지만 실제로 얼마전까지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 보존이 잘 된 내부를 볼 수 있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내부는 3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북쪽을 향해 창이 나 있는 곳은 여자와 아이들과 손님을 위한 공간, 가운데는 거실 겸 주방, 가장 남쪽에는 문을 여닫을 수 있게 공

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곳이 조부모가 생활하시고,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 모시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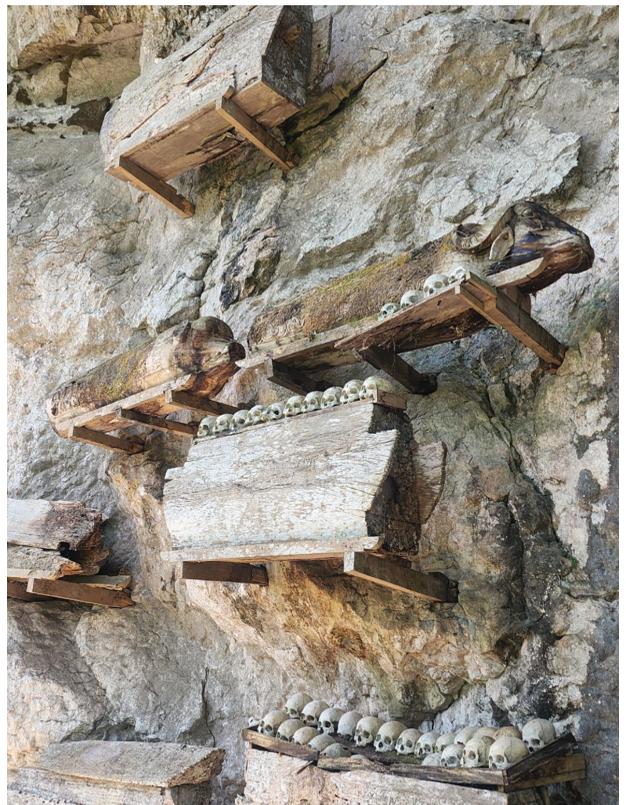
처마와 지붕사이의 다락같은 공간에는 유품 등 집안의 귀한 물건을 보관한다.

겉으로 보기보다 내부공간은 비좁았지만, 땅에서 떨어져 있고 지붕이 높아서인지 공기가 덥지 않고 시원한 편이었다.

우리 탐방팀도 똥꼬난 안에 모여서 한 가족인 것처럼 둘러 앉아 잠시 더운 열기를 식혔다.



똥꼬난 측면에 걸려있는 물소머리뼈; 한번의 장례식에 하나의 물소머리뼈를 걸 수 있다고 하니 이 곳에서 얼마나 많은 장례가 치뤄졌는지 알 수 있다.



석실을 만들지 않고 관을 매달아서 매장하거나 혹은 바닥에 안치해 놓는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 높은 곳에 매달 수 있다. (좌) 가족관 위에 놓인 머리뼈와 돼지, 물소 모양의 관; 처녀는 돼지 모양의 관, 총각은 물소 모양의 관에 매장된다.(우)



똥꼬난의 내부; 건축물은 북향,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내부공간이 있고 세 부분으로 나뉘져 있다. 여자와 아이들과 손님을 위한 공간(왼쪽), 중앙은 거실 겸 주방공간, 가장 남쪽공간은 부모님 방으로 쓰이다가 장례를 치르기 전(돌아가신)의 부모님을 모신다.



현대식 가족무덤; 기존의 석벽무덤 대신 똥꼬난 혹은 모던한 양식의 건축물의 가족묘를 만들기도 한다.

똥꼬난이 있는 마을은 뒷 쪽에 산을 등지고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그 산이 선산이 된다. 18세기 이전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석실을 만들어 안치했지만, 이후에는 대부분 바위산의 벽에 관을 거치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돈이 없는 하층민들은 동굴에 가족 공동관이나 개인관을 놓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배모양은 신분이 높은 가족관,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은 돼지, 물소 모양의 관에 안치된다.

석벽이나 동굴이 관을 안치하던 방식에서 최근에는 똥꼬난 모양이나 모던한 형태의 가족묘를 따로 만들어 안치하는 추세이다.

드디어 우리 탐방의 백미, 람부솔로(Rambu Solo)로 향한다!

모르는 누군가의 장례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가려니 송구한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그 분도 오늘 드디어 물소들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뿌야(Puya)로 가시는 날이니 이 어찌 즐겁지 아니하단 말인가!

고인은 군인출신으로 작년 8월에 작고하시고, 1년 동안 모셔져 있다가 장례를 치른다고 했다. 장례식장은 넓은 마당을 중심으로 친지들과 손님들이 머물기 위한 2층자리 대나무 건축물이에 둘러싸여져 있다. 마당에 한쪽 중앙에 고인을 모신 똥꼬난 모양의 상여가 놓여있고, 그 앞에 초상화가 놓여있고 상여에는 고인이 살아생전 입던 옷이 걸려있었다.

마당의 다른 쪽 중앙에는 장례식을 주최하는 직계가족들의 무대가 있다. 그 앞에 박혀져 있는 거석을 비롯해서 마당의 중간중간에 약 3미터 정도로 보이는 거석들이 땅이 박혀 있었는데, 그것은 물소를 24마리 이상 바친 사람들을 기념하는 비석이다.

손님들은 조문의 뜻으로 돼지나 물소를 가지고 온다. 물소와 함께 행진하며 가족들과 그 곳에 모인 가족들에게 인사를 한 후 물소는 거석에 매여 있다가 모든 손님들 앞에서 목 울대가 잘리며 도살된다. 도살되는 소는 모인 손님들을 위한 고기로

대접된다, 길게는 일주일, 장례식 기간내내 십수 마리의 돼지와 물소의 도살하고 그 고기를 대접하는 것이 장례식의 주요행사이다.

예상하겠지만 한 마리에 수백만원, 비싼 것은 거의 1억에 가까운 알비노 물소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그럴만한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에서 가능한 것이며, 후에 다 되잖아 줘야 하는 빚이다. 만약 그 대에 갚지 못한다면 후대로 내려가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 사람은 이치는 어느 곳이나 비슷한 것 같다.

우리가 간 날이 장례식의 마지막 날이자 상여가 나가는 날이라, 군인이었던 고인을 추모는 군인들의 사열식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손님들의 공간인 대나무 건축물안으로 안내되었고 종이에 쓴 밥에 야채와 매운 양념이 들어간 멸치조림을 대접받았다. 허기를 달래기에 충분히 맛난 음식이었다. 하늘을 찢는 듯한 총소리와 함께 사열식이 시작되고 군인의 대표가 고인의 일대기를 읊는다. 그 다음은 가족의 대표가 나와 그에 대한 감사인사를



24마리의 물소를 희생한 장례식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이나 희생되는 물소를 묶어 놓는 곳, 지위가 높고 더 많은 물소를 바칠수록 더 높은 비석을 세울 수 있다.



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상여가 나가기전 상여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인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맞춰 입은 모습이 인상적이다.

하고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대표이름으로 손님들께 감사인사를 한다.

이제 공식적인 장례식 절차가 모두 끝난 듯 보였다. 며칠간 손님을 치룬 상주들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며칠 간의 장례식 길게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간의 상을 드디어 끝내는 얼마나 홀가분할까. 상여가 나가기 전, 가족 친지들이 전부모여 상여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그들은 고인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똑같이 맞춰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의 장례식은 고인을 추모하고 이별을 아쉬워하는 엄숙하고 슬픈 장례식인데, 람부술로는 고인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맞춰 입은 가족들이 지인들과 함께 고기국을 나누며, 먹고 마시고 기념촬영을 하는 떠들썩한 잔치 분위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돌아가신 분을 보내 드리지 못하고 1년간을 집안에 두고 있는 마음이 오죽할까. 애뜻한 이별의 슬픔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끝내지 못한 숙제를 떠안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이었으리라.

아무리 시신을 처리하는 기술이 발달했다고는 하나, 유기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나 미생물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며 저들에게 장례식은 어떤 의미일까, 전통과 상식사이, 구세대와 신세대 간에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증이 들었다.

이제는 고인을 보내 드릴 시간, 희생된 물소들이 이끄는 수레에 실려 뿌야(Puya)라는 천국으로 간다고 믿는다.

아쉽게도 우리는 상여가 나가는 행렬까지는 볼 수가 없었다.

우리는 마지막 행선지, 보리 깔림부앙(Bori Kallimbuang)으로 향했다.

이곳도 란떼(Lante), 즉 장례식 등의 행사를 치루는 곳으로, 이미 너무 많은 거석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만큼 대규모의 란부술로를 치룬 곳이라는 의미.

맨 마지막으로 본 것은 빠실리란(Passilliran), 치아가 나기 전에 죽은 아기들을 위한 나무무덤이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 알루토들로 신앙에 의하면, 갓난아기가 죽으면 반드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아기가 나무에 들어가서 나무수액을 엄마젖 대신 먹으면 다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아이는 죽어도 포르말린 처리를 하지 않고 시신을 형겹에 싸서 살아있는 나무안에 안치한다.

아기는 나무를 새로운 엄마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엄마는 장례식에 따라가서는 안되고, 또 엄마를 그리워하게 하지 않기 위해 집이 보이지 않

는 반대방향으로 나무기둥에 구멍을 파서 아이를 안치한다. 그리고 이죽(Ijuk)으로 만든 문으로 구멍을 닫는다.

아이를 제 손으로 묻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볼 수도 없는 어미의 슬픔이 오죽할까.

그 부모들의 헤아릴수 없는 깊은 슬픔과 새 삶에 대한 염원이 담겨서일까. 나무기둥은 마치 강한 힘줄처럼 얽혀있었고, 땅의 영양을 빨아들여 아이에게 공급해주려는 동맥과 정맥처럼 설켜있었다.

토라자에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일한다”는 말이 있다.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등골이 휘는 자신들의 처지를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겠지만, 역설적이게도, 농업이 주요 산업이고 일자리가 없어 도시로 빠져나가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생계수단으로,



아기무덤 나무



이 곳의 거석 또한 람부솔로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  
 뒤편으로 들어가면 가족들이 안치된 꾸부란 브따네(Kuburan Betane) 족, 현대식무덤을 볼 수  
 있었고, 석벽대신 큰 바위에 석실을 만들어 가족공동무덤으로 만든 것도 볼 수 있었다.

장례문화와 커피를 앞세운 관광업이 도시를 먹여 살리고 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기에 유지되는 관습이지만, 손해나 이득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토라자에서 자란 젊은 세대들은 이런 장례식을 따르고 싶어할까? 그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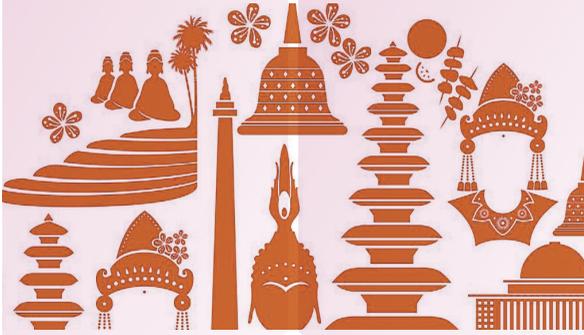
한국의 관습 중에는 과거에 49제가 있었고 그보다 더 전에는 3년상이 있었다. 허례허식인 차례제 사문화는 많이 간소화 되었으나, 아직도 명절에는 시댁에 먼저가야하고 명절동안 여자들에게만 과중한 노동을 지우는 관습은 남아있어서 명절 때마다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곤 한다.

오래된 어떤 관습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섬세하게 변화된 사회의 가치를 거스르고, 사회구성원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습이다. 생각해보자, 그 관습은 몇백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공통된 가치와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그 시대와 현재 사이에는 사회적 인식과 합의된 가치에 있어서 엄청난 괴리가 있을 것이다.

전통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평화와 존엄을 무시하고 따르기만을 강요한다면 그 폭력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관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현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고 지킬 수 있는 길이 라고 생각한다.

장례식과 무덤들을 다녀온 후, 어릴 적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부적이라도 태워 뛰어넘어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혼자서 피식 웃었다. 스스로 합리적인 세대라 생각하며 멋있는 말을 늘어놓다가 겨우 생각해낸 게, 귀신 붙었을지 모르니 부적태워야 하는 하나, 이런 생각이라니...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 준 헤리티지 선생님들과 전통을 지키며 람부솔로를 행해준 가족들과 희생된 물소들과 엄청난 엔진소리를 내며 힘겹게 오르막을 올라주었던 버스와 사진을 놀랍게도 못 찍으셨던 가이드 아루씨와, 화창한 날씨 그리고 자연에 감사를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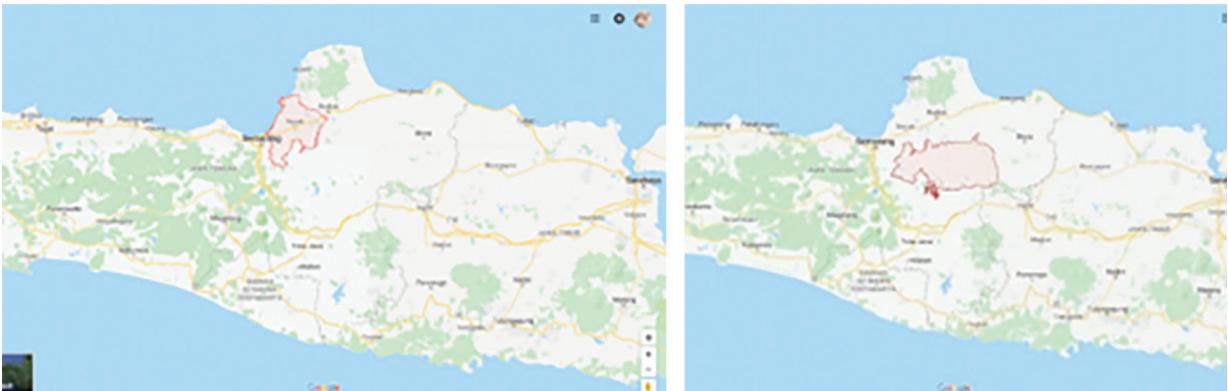
## 디폰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이제 상황은 망꾸부미 왕자와 라텐 마스 사이드가 힘을 합쳐, VOC(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등에 업은 빠꾸부위노 2세와 대립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들 사이의 전쟁을 역사가들은 제3차 자바 계승전쟁(Perang Suksesi Jawa III)이라 부릅니다. 1747년에 이르러 망꾸부미 왕자는 약 13,0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드막(Demak)과 그로보간(Grobogan) 등지의 전투에서 VOC군대와 카르타수라 왕국군을 상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삼촌, 어서 오세요!”

전장에서 망꾸부미 왕자와 서로 여러 번 치명적인 공격을 주고받았던 라텐 마스 사이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두 팔을 활짝 벌려 망꾸부미 왕자와 그의 일행을 맞으면서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서로의 피를 뿌렸던 사이드 측의 병사들은 버거운 적이었던 망꾸부미와 그 부하들이 내심 반감지만은 않았습니다. 망꾸부미 왕자는 조카와 그쪽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좀 더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구스티 라투 번도로(Gusti Ratu Bendoro)라고 불리게 되는 그의 딸 라라 인텐(Rara Inten)을 라텐 마스 사이드와 혼인시키며 혼맥을 쌓습니다.

한편, 1749년 12월 11일 병이 깊은 수라카르타의 빠꾸부위노 2세는 눈을 감기 직전 까르타수라 수난국의 전권을 VOC에게 이양했습니다. 차기 수난 결정권을 네덜란드에게 맡기는, 그야말로 주권국의 면모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결정이었죠. 이 소식을 듣고서 혀를 찬 망꾸부미 왕자는 라텐 마스 사이드 진영 본진에서 12월 12일 까르타수라의 차기 수난 빠꾸부위노 3세로 즉위식을 올립니다. 그러나 VOC는 이를 무시하고 12월 15일 빠꾸부위노 2세의 아들을 빠꾸부위노 3세로 즉위시켰죠.



드막(왼쪽), 그로보간(오른쪽) - 출처: 구글맵



이제 까르타수라 수난국엔 두 명의 빠꾸부워노 3세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때 망꾸부미는 교바나란의 수수후난 (Susuhunan Kebanaran)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그의 부대 본진이 마타람 지역 교바나란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망꾸부미 왕자는 1751년 보고원토 강(Sungai Bogowonto) 전투에서도 드 클럭(de Clerck) 대위가 이끄는 VOC 군을 크게 격파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망꾸부미 왕자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주변에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라덴 마스 사이드 자신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망꾸부미의 조카이자 사위였지만 두 사람은 같은 편에 있으면서도 자바의 주도권을 서로 다투는 경쟁관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21세기에 들어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국가영웅으로 지정되는 사람들이지만 영화 어벤저스의 마블 영웅들과 달리 실제 역사 속에서 이들이 꼭 끈끈한 우정으로만 이어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1752년에 이르러 마침내 망꾸부미와 라덴 마스 사이드가 충돌했습니다. 원래 라덴 마스 사이드가 구축한 조직에 뒤늦게 합류했던 망꾸부미의 세력은 필연적인 수적 열세에 몰려 정치적으로 사이드를 상대하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정면돌파하려 했지만 그마저 실패하고 말았어요. 무력에서조차 라덴 마스 사이드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망꾸부미는 자기 사위에게 온전히 항복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꾸부워노 3세

“라덴 마스 사이드여, 내가 졌다. 이제 항복하네 수하들의 목숨만은 살려 주기 바란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외견상으로만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적대시해왔던 VOC에게 몰래 손을 내밀어 함께 라덴 마스 사이드를 치자는 은밀한 제안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까르타수라의 빠꾸부워노 3세와도 협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VOC가 그 제안을 답석 문 것이 1754년의 일입니다. 망꾸부미 왕자가 까르타수라를 떠난 지 8년만이었죠. 일전에 임호프 남작이 제안한 것처럼 자바 북부해안이 VOC에게 조차될 것을 전제로 그 북부해안 주지사로 내정되어 있던 니콜라스 하르팅(Nicolaas Hartingh)과 교섭한 망꾸부미는 빠꾸부워노 3세의 왕국 절반을 할양받는 대신 그동안 줄곧 반대해 왔던 VOC에 대한 자바 북쪽 해안 조차를 수용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VOC가 지불하는 20,000레알을 망꾸부미와 빠꾸부워노 3세가 반씩 나누어 받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www.klikbatavia.com

야콥 모셀 VOC 총독

(출처 - <http://memorijakarta.blogspot.com/2015/04/jacob-mossel.html>)

이 합의를 구체화시킨 기안티 조약(Treaty of Giyanti)에 1755년 2월 13일 망꾸부미 왕자와 네덜란드 총독 야콥 모셀(Jacob Mossel)이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의 결과로 망꾸부미는 빠꾸부위노 3세의 까르타수라 왕국 남쪽 절반을 넘겨받아 족자 술탄국을 세우고 자신이 술탄 하멩꾸부위노 1세로 등극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족자 술탄국은 그렇게 네덜란드와의 협상을 통해 세워지면서 네덜란드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약점을 안게 됩니다. 기안티 조약은 이 외에도 라덴 마스 사이드의 반군을 격멸시키기 위해 망꾸부미 왕자의 군대가 VOC 및 빠꾸부위노 3세의 군대와 손을 맞잡는다는 서약도 담고 있었습니다.



기안티 조약을 통해, 빠꾸부위노 3세는 수라카르타의 왕이란 사실을 재확인했을 뿐 영토의 반을 뺏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했고 이제 하멩꾸부위노 1세가 되어 족자 술탄국의 국왕으로 등극한 망꾸부미 왕자는 1756년 10월 7일 왕국의 수도를 꼬바나란에서 족자로 옮겼습니다 왕국의 원래 명칭은 응아육야까르타 하디닝랏(Ngayogyakarta Hadiningrat) 이지만 앞서 정한 바와 같이 족자 술탄국(Kasultanan Yogyakarta)으로 줄여 부르기로 합니다.

그렇게 다시 적으로 돌아선 하멩꾸부위노 1세와 라덴 마스 사이드는 그로부터 30여년 후인 1790년 다시 한번 손을 잡고, 1788년 즉위한 수라카르타의 빠꾸부위노 4세를 포위공격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755년 기안티 조약과 함께 맺었던 족자 술탄국과 수라카르타 수난국의 평화조약은 한낱 종이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라덴 마스 사이드가 자신이 점령하고 있던 동쪽지역을 망꾸부미가라 봉국(封國- Kadipaten Mangkunegaraan)이라 명명하고 자신은 망꾸네고로 1세가 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VOC는 이번엔 하멩꾸부위노 1세의 편에 섰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연합군의 물리적 압박에 굴복한 빠꾸부위노 4세는 마침내 손을 들었고 VOC는 그의 주변에 모여든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쫓아내 버렸습니다. 강경한 이슬람 지도자들은 필연적으로 수난의 귀에 이민족과 이교도의 축출을 속삭일 터였고 그것은 스스로 이민족이자 이교도인 VOC로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안티 조약의 결과로서 까르타수라 왕국은 족자 술탄국과 수라카르타 수난국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1755년 당시에도 왕국의 동쪽은 이미 라덴 마스 사이드가 지배했고 이 지역은 나중에 망꾸네가라안 자치국으로 발전한다. 한편 1812년 영국이 자바를 지배하던 당시 족자 남서부가 빠꾸알라만 자치구로 독립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마타람-까르타수라 왕국은 두 개의 왕국과 두 개의 봉건 자치구로 나누어지게 된다.



빠꾸부워노 4세

“그럼 결국 우리 족자 술탄국이나 수라카르타 수 난국, 망꾸느라가 봉국 모두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죠?” 무스타하르 왕자가 초롱초롱 눈을 빛내며 묻는 질문에 하궁 왕후는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제들끼리만이라면 아주 오래 전에 화해했겠지. 그래서 마타람 왕국의 위대한 술탄 아궁(Sultan Agung) 시대처럼 자바땅 전체를 다스리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왜요? 왜 화해하지 못했죠?”

“꿈페니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이란다.”

“네덜란드 이교도들 말씀이시죠?”

하궁 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마타람의 형제들이 서로 칼을 겨누길 바란단다. 그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족자와 수라카르타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란다. 시조 술탄께서도 꿈페니를 몰아내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기셨단다.”

“시조 술탄께서 술탄이 되시기 전에도 여러 번 꿈페니 군대를 무찌르셨는데 술탄이 되신 후에 왜 그들을 몰아내지 않은 거죠? 술탄께서 그들에게 물러나라 하시면 누가 그 말을 거스를 수 있겠어요?”

어린 무스타하르는 장군으로서 전투에 승리를 거두는 것과 술탄으로서 왕국을 경영하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임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군들

은 양손에 총칼을 들지만 술탄은 전쟁과 강화를 각각 들어야 한다는 것어요. 하궁 왕후는 무스타하르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분도 그걸 늘 안타까워 하셨단다. 언젠가 네가 술탄이 되면, 꼭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다오.”

뜨갈레쥬의 밤은 그렇게 깊어 갔습니다.

당시 망꾸부미 왕자와의 전쟁이 VOC가 존속하던 기간 중(1619~1799) 겪었던 전쟁들 중 가장 힘겨운 것이었다는 네덜란드 측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좌에 앉아 왕국을 다스리는 것은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고 결국 현실적 한계에 마주친 술탄 하멩꾸부워노 1세는 이민족들과도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적과도 같던 VOC는 무스타하르가 15세가 되던 1799년 12월 31일 누적된 적자를 이기지 못해 파산하고 맙니다.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198년만에 문을 닫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동인도 지역을 포함한 VOC의 모든 식민지와 자산을 인수한 네덜란드 왕국은 정부 고위공무원들을 총독으로 파견하며 식민지를 더욱 옥죄어 갔습니다.



오늘날의 브레더부르크 요새

출처-<http://vredeburg.id/wp-content/uploads/2015/08/13vredeburg.jpg>

# 韓方

## 서상명의 한방칼럼7

지난 호에 이어

### 뇌혈류 (腦血流)과 심장병 2

며칠 뒤..

황기찬: 할아버지 갑자기 왜 그래?

할아버지: 아니다 괜찮다. 음~

황기찬: 아빠! 할아버지가 이상해요. 가슴에 손을 대고 아파하고 계세요.

-다행히 몇 분 뒤 할아버지는 안정을 찾으셨다,

잠시 뒤 병원 내원 현장.

의사: 최근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셨나요?

할아버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미식거리고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소화불량이려니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죠?

의사: 할아버님처럼 고령이시고 혈압약과 기타 혈관질환관련 약을 오래 복용하신 환자분들 경우 심장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초기에는 소화불량, 숨가쁨, 가슴답답함 정도의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해서 점차 호흡곤란, 가슴이 쥐어 짜여오는 통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게 소화불량이 아니고 무슨 병인가요?

의사: 언뜻 소화불량과 혼동할 수 있는데 이병은 협심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만약 계속 병이 진행된다면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가 드니 이런저런 병이 생기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약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거죠? (애써 웃으시며 얘기하신다)

-집으로 돌아오신 할아버지

황기찬: 할아버지 이제 괜찮은 거야?

할아버지: 그럼, 괜찮고 말구. 할애비가 우리 예쁜 손주 업어줄까?

황기찬: 아니야 나중에.. 근데, 할아버지 손에 약봉지야? 또 먹어야하는 약이 늘어난 거야?

그럼 보자~ 전에 4개였으니까 이제 5개 먹어야 되는 거네! 이러다 세상 약은 할아버지가 다 먹겠다(씩씩거리며 얘기한다)

할아버지: 이 할애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할애비 별명이 뭐 줄 아니? 바로 '무쇠'란다. 무쇠처럼 단단해서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지. 우리 손주 두고 할애비가 어디 가겠니?(입가에는 짙은 미소가 드리웠다)

**\*협심증과 심근경색:** 당뇨, 고혈압, 흡연, 비만 등의 원인으로 죽상동맥경화증이 발생하면 죽종(동맥의 벽에 붙은 세포부스러기)이 떨어져 나가거나 죽종안에서 출혈이 생기면 혈전(피

떡)이 생겨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이때 심장근육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협심증이라고 칭하고, 막히면 심근경색이라고 칭합니다.

### \*심장마비 전조증상:

남성: 갑자기 심한 가슴 답답함

여성: 이유없이 숨이 찬다. 호흡곤란증상

심장병이 오래되거나, 평소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분들게도 심장마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사망률이 높고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진단된 환자분들의 경우 사망률이 50%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어서 일어나 학교가야지~

황기찬: 엄마 근데 할아버지는 왜 밤마다 화장실 가는 거야?

엄마 : 중풍 앓으시기 전부터 었을거야. 저녁으로 몇 번씩 화장실에 소변보러 다니셨거든. 예전에 심할 때는 1시간에 한번씩 소변보러 일어나셨어.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거지. 하루저녁에 1~2번 가시니까

황기찬: 그렇구나.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할아버지는 나하고 있을 때 재미있으시대. 할아버지는 친구 없어?

엄마: 왜 없으시겠니. 팔다리 움직임이 힘들어 지시고 나서 바깥활동은 거의 안하셨지. 원래는 동분서주 하시던 분이셨거든. 친구도 많고...엄마도 할아버지 웃는 모습을 통 못 본단다. 너하고 있을 때만 유독 미소짓고 웃으시더라

황기찬: 얼마 전에 미영이네 할머니랑 마주쳤는데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 근데 영민이네 할머니는 수술하시고 병원에서 퇴원한지 얼마 안됐거든, 영민이네 할머니랑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

엄마:그건 나중에 우리 찬이가 크면 알게 될거야. 동변상련이라는 말을...

황기찬: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워^^

아무튼 할아버지는 심심하겠다. 나는 친구랑 싸웠을 때만 혼자 노는데.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자주 싸우시나?

-그때 기찬이는 몰랐다.

중풍환자들의 대부분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 5년후

할아버지는 다행이 추가로 복용하는 약이 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줄었다.

하루는 아빠와 엄마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할아버지 거동이 불편하시니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한 내용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와 떨어진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잠자기 전 할아버지를 찾아가 옆에 가만히 누웠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할아버지와 들판을 뛰어노는 꿈을 꾸었다. 나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옛날얘기 듣는 것이 즐겁고 생일마다 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 너무 좋다.

의사: 언제부터 기침을 시작하셨나요?

할아버지: 대략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씩 헛기침 하듯이 나오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기침도 늘어나고 가래색깔도 이상하다 싶어서 와봤습니다. 별 일 아니겠지요? 내가 이래봐도 젊어서는 어디 한번 아파 본 적 없이 건강했다우.(헛기침을 연거푸 하신다)

의사: 일단 몇가지 검사결과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어, 조직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요? 갈수록 몸에 힘이 빠져서 걱정인데, 병만 들어가네요(오늘따라 두 어깨가 유난히 처져 보이신다)

의사: 제가 환자분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언제 병이 나올까요?” 입니다. 모든 환자분들 생각이 비슷하세요. “빨리 치료하고 회복돼서 옛날처럼 지내고 싶다.”, “건강도 잘 돌보고 예전보다 훨씬 더 시간을 소중히 쓸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농작도 씨 뿌린 후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가되어 열매 맺으면 수확을 하듯이, 병의 회복도 과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힘들고 급한 마음 드신다는 거 알지만 마음에 여유를 가지는 것이 회복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할아버지: 그렇지요. 저도 잘 알지만, 나이를 먹어도 마음 다스리는 것이 여전히 어렵네요.

의사: 환자분들의 말 못하는 고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힘내세요.

## 며칠 후

조직검사결과 폐에서 작은 악성종양(암)이 발견되었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가족들과 상의 끝에 할아버지는 수술을 결정하셨다.

황기찬: 할아버지! 수술하면 언제 돌아와?

할아버지: 스무밤 자면 돌아온단다.

황기찬: 엄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 큰 수술 하신다고, 할아버지 귀찮게 하지 말래.

할아버지: 걱정하지 말거라. 이 할애비 별명 기억하지? 꼭~ 이겨내고 걸어서 돌아오마. 할애비 돌아오면 놀이동산 놀러갈까^^

황기찬: 할아버지 나 이제 중학생이야. 다 컸다고. 그래도 할아버지랑 놀이동산은 가고 싶어.

할아버지 돌아오면 손잡고 같이 가자^^

-할아버지는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셨다.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꿈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되신 것이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나며 안타까운 이별을 마주한다.

내가 연구실에서 목메고 있는 이유는, 모든 질병을 퇴치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인류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고 정복되어지는 질병도 늘어나고 있다. 암도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더 희망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황기찬

\*미르한의원 유튜브 : INDO-TCM (한글자막)

미르한의원 주소: Wijaya Grand Centre  
Blok C No. 37 Jakarta Selatan  
(위자야센터 안 OK덴탈 옆 위치) 0856 9453 7974

## 수학을 만지고 체험하고 즐기자! 「2023 JIKS 수학체험전」

지난 10월 6일(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교장 이선아)에서 「2023 JIKS 수학체험전」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JIKS 7학년~11학년 학생들이 참가하여 수학 부스 체험을 통하여 생활 주변 현상, 생활 속에 들어 있는 수학적 요소를 발견하고 수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였다.

‘정다면체 무드등 만들기’, ‘파라코드 팔찌 만들기’, ‘수학 고누 체험’ 등 재미있게 수학을 접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총 23개 운영되었다. 학생들은 부스 체험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모든 부스는 10~11학년으로 구성된 운영단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JIKS 수학과 이소연 선생님은 “학생들이 다양하고 재밌는 수학 부스 체험을 통해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수학이 어려운 학문이 아닌 실생활 속에 깃들여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이번 수학체험전은 포스터 제작부터 부스 기획 및 운영까지 학생들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수학의 흥미로운 점을 찾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행사 관련 영상은 JIKS 유튜브 채널(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또는 <https://youtu.be/mt5W4N43Rv4?si=UWs2IjYsCwTV0ttf>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난이’ 와 ‘순이’



## 이름살 ‘난이’

‘난이’ 라는 이름은 ‘못난이’ 의 줄임말 이고 닥스훈트를 사랑한 퍼그가 낳은 여자 아이입니다.

두어 달이면 끝나겠지 싶었던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기가 일 년이 되가던 즈음,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식당을 하던 친구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며 키우던 애완견을 보낼 때가 없어 매일 눈물 바람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장 내일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데려가기로 했던 집과는 다시 연락이 안되고, 자주 지나던 경비원 하나가 맛있게 생겼다며 30만 루피야에 사겠다 한다고. 6년이나 한 이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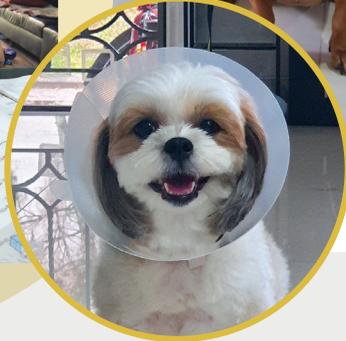
에서 함께 자며 지낸 가족인데 어찌면 좋겠냐며 일단 우리집으로 데리고 가서 새 주인을 찾아보면 안되겠냐고 말합니다.

‘난이’ 를 데리러 갔을 때, 난이는 마치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보는 내 옆에 꼭 붙어 앉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뿐히 우리 차에 올라탔습니다. 며칠을 눈물 바람하던 엄마에게 정이라도 떼듯이 그렇게 돌아서 와서는 며칠을 문 밖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난이’ 는 그렇게 우리집에 오게 되었고 팬데믹에 학교도 못가고 갇혀 지내던 우리 꼬맹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난이는 너무 똑똑한 듄직(?)한 친구입니다. 작은 아이가 넘어지면 어쩔 줄 모르고 아이 주변을 뱅뱅 돌고, 아이들을 야단 치면 저와 아이 사이로 비집고 서서 ‘위위~~’ 하며 저를 말합니다.





## 두살 '순이'

한국 사람과 인도네시아 사람을 기막히게 구분하고 특히 낯선 남자가 집 근처에 다가오면 매우 경계하고 짖습니다.

우리 꼬맹이들은 팬더믹에 난이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나 함께 산책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순이도 팬더믹에 우리집에 왔습니다. 친구네 애완견 커플이 귀여운 남매 세 마리를 낳았는데, 강아지를 데려가기로 했던 가족이 코로나 투병 중 이어서 제일 씩씩한 첫째가 우리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영어로 Sunny 이지만, 우리는 한국식으로 '순이' 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시추를 사랑한 몰티즈가 낳은 셋 중 첫째 언니입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우리집에 와서 난이의 교육을 받아 난이와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단, 아이들이 너무 예뻐해서 야단 맞는 게 뭔지 아직 모르는 아이입니다. 세상이 참 아름답지만 한 천진난만, 발랄애교의 소유자입니다.

이윤채, 이윤진 자매집사  
(DSJ 자카르타 독일학교 G9,G7)



## 다시 비에 젖을 수 있을까?

한지영(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어린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마냥 좋고 즐거웠다. 갈대보다도 얇은 보슬비가 날리는 것에도 웃음 지었다. 굵은 장대비가 오는 것도 두려움 없이 신기하며 흥미롭게 여기며 바라봤던 기억이 난다. 겨울이면 보슬보슬 훑날리는 싸리눈이던, 함박눈이던. 눈이 내리면 그 자체로 해맑게 즐거웠다. 물론 소복하게 쌓인 눈이 나에게 만들어준 놀이터는 더 없는 행복의 마당이 되어주었다. 비와 눈은 그렇게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 시절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그 때 나의 엄마는 비와 눈에 젖은 어린 아이가 감기라도 걸릴 것을 무척이나 염려하시면서 눈비에 아이가 젖을 새 없게 가려주시고, 털어주시기에 많이 바쁘셨던 것 같다. 내 기억에 엄마는 비나 눈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는다는 사춘기 시절에는 일부러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도 했다. 고등학교 시절 어느 비 내리는 날의 자율 학습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옥상으로 향했다. 당연히 우산은 챙겨가지 않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젖어 들어가는 화장지 마냥 우리는 젖어가고 있었지만, 친구와 함께 비를 맞는 그 자체로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멋있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캄캄한 밤 빗속에서 옷이 젖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깔깔대며 행복해 했던 나와 친구들의 모습은 아직도 내 기억 속 선명한 한 장면이 되어 남아있다.

내게도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40여년, 그다지 길지 않은 삶을 살아온 지금의 나는 비에 대한 낭만 같은 건 모두 망각한 채로 지극히 현실적이고 건조한 생각들만 하며 살아온 시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진다. 물론 그런 생각들이 모조리 다 잘못된 것이라 할 수도 없고 아니라 할 수도 없지만, 가끔 나는 그렇게 사막의 모래 같이 건조한 나에게 대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된다.

나는 언제부터 이 에너지를 잃기 시작했을까 생각해 본다. 누군가는 평생 그런 에너지를 간직하고서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분명 언제부터인가 그 에너지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리다 못해 그 에너지를 가진 적 없었던 것처럼 바짝 말라버린 채로 제법 긴 시간을 보냈다. 비가 오면 신발에 물이 스며드는 것이 불편해서 장화를 찾아 신으려 했고, 티도 안 나게 사람을 젖게 만드는 부슬비가 오는 것이 장맛비가 내리는 것보다도 불편해 지기도 했다.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러울 것을 걱정했다.

엄마가 된 후에는 아이가 눈 속에서 신나게 놀고 난 후 젖어있을 장갑과 추위 속에 땀 흘려 감기에 걸릴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내 기억 속의 엄마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 아이를 눈 비로부터 가려주고, 털어주기에 여념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훌쩍 사춘기에 들어선 딸아이를 통해서 나의 그 시절- 마법의 에너지가 넘쳤던 시절을 다시 떠올렸다. 딸아이는 고등학교 시절의 나처럼 빗속을 우산 없이 걷고 싶어 했다. 비에 젖어드는 것이 무섭지 않은 딸아이는 그 시절의 나와 같았다. ‘나도 저렇게 그냥 비 맞는 것을 좋아했던, 망설임 없이 실행에 옮겼던 때가 있는데.’ 라고 조용히 혼자 생각했다. 혹여 딸 이아가 내 마음을 알아챌까 싶어, 꾀꾀 숨겨서 추억했다. 딸아이는 이어 내게 묻고 있었다. “엄마 비 오는데 저 나가서 걸어도 되요?” 이 아이도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엄마는 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젖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어린 시절의 내가 그랬던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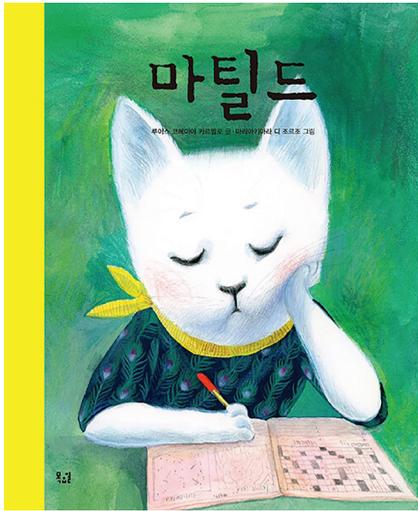
길어진 건기에 많은 사람들이 손뽀아 비를 기다리고 있다. 나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아마도 비가 오면 이미 익숙한 대로 나는 비로 인해 불편한 것들을 또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래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번에는 딸아이와 함께 비를 향해 걸어 나가 볼 생각이다. 딸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법의 에너지를 빌려서 나의 추억을 되살려 보고 싶다. 나중에 딸아이의 기억 속에 ‘엄마와 함께 빗속으로 걸어 들어감’ 이 한 장면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한 장면처럼 남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 글쓴이 한지영님은 제 5회 적도문학상(2023) 수필 부문 우수상 수상자입니다.



그림책은 어린이만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0세부터 100세이상까지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책입니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림책부터 어른들을 대상으로 나온 그림책까지 다양한 그림책의 세계를 소개해 드립니다.

## 나르시스적 사랑에 대처하는 방법



『마틸드』  
루이스 코헤이아 카르멜로 글, 마리아키아  
라 드 조르조 그림, 이정희 옮김, 32쪽,  
목요일, 2023 Matilde(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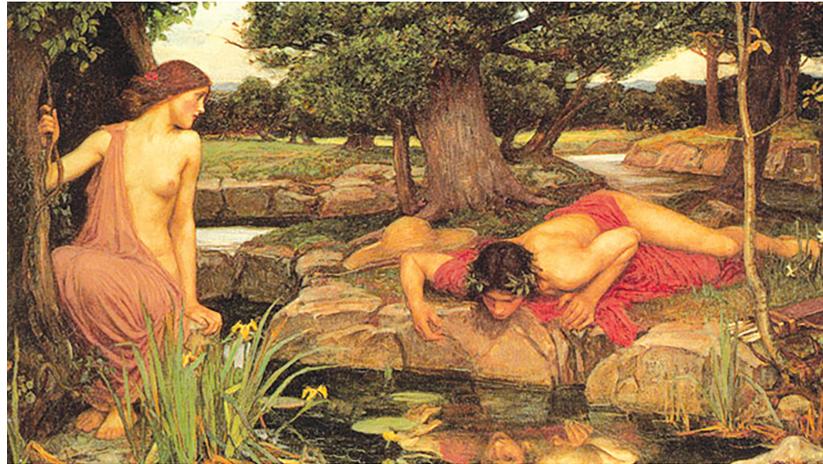
### 내가 사랑한 사람이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

모든 것에 시작이 있듯 사랑도 마음 속에 불씨가 지펴지는 순간이 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여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랑도 있으나 안타깝게도 그런 상호간의 교류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내 사랑이 향한 상대방이 내가 아닌 다른 이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현실은 이렇게 잔혹한 경우가 더 많다. 사랑해선 안될 사람을 사랑하면 그 끝은 비극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마치 그리스 신화 속 나르시스와 에코처럼 말이다.

매력적인 고양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림책 『마틸드』에서도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사랑을 볼 수 있다. 옷 가게 에스메랄다에서 일하는 마틸드. 무료한 일상에 어느 날 가게 밖에 서 있는 나르시스를 발견한다. 그가 자신을 보고 웃고 있다고 착각한 마틸드는 마음 속에서 혼자만의 사랑을 키워간다. 반면 나르시스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느라 유리 안쪽에 누가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 가게 안에서만 나르시스를 보았던 마틸드는 우연히 밖에서 나르시스의 시선과 미소가 향한 곳을 확인하고, 자신이 큰 오해를 했음을 알게 된다.

누구든 그를 보면 망연자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된다는 빼어난 용모의 나르시스(Narcissus나르키소스)는 이미 이름에 ‘망연자실’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의 눈에 차는 상대는 없었기에 다가오는 모든 이들을 야멸차게 거절했다.

에코 또한 나르시스에게 연정을 품었지만 잔인하게 무시당했고, 거부당한 사랑의 고통에 몸부림치다 목소리만 남게 되었다. 수많은 구애자들의 애달픈 마음이 하늘에 닿아,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의 저주를 받은 나르시스. 깊은 숲 속 맑은 샘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버리고 만다. 그 상대가 자신임을 알고도 접을 수 없던 나르시스의 사랑 역시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에코와 나르키소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나르시스와 에코

『마틸드』에서는 연극학을 전공한 글작가 루이스 코헤이아 카르멜로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화 속 에코와 나르시스가 현대적 상황에 맞게 새롭게 등장한다. 여기에 영화 스토리보드 작업 이력을 지닌 그림작가 마리아키아라 드 조르조가 이야기를 멋진 색감과 구조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무대 위에 올려놓았다. 오묘한 초록색 표지 속 무심히 퍼즐을 맞추는 하얀 고양이와 첫 눈에 독자의 시선을 잡는다. 고양이의 스카프와 같은 밝은 노란색 책등이 주인공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만든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펼치면 몽환적인 푸른색 반복 패턴이 면지에 펼쳐진다. 벽지 혹은 타일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문양은 마틸드가 일하는 가게 에스메랄다와 나르시스의 집이 있는 건물 벽면으로 이어진다. 표지의 에메랄드 빛깔 초록색과 면지의 파란색은 두 주인공을 나타내는 색깔로 쓰인다. 또한 두 인물의 그림 서사와 글 서사가 서로 다른 페이지에 교차하며 이어지는 초반 부분은 연극이나 드라마 장치처럼 보이기도 한다.



투명한 유리 벽을 사이에 두고 마틸드와 나르시스는 각자 다른 존재를 마음에 품는다. 마치 샘에 비치는 자신 밖에 볼 줄 몰랐던 나르시스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에코처럼. 나르시스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마틸드가 에코일까’ 생각하게 되지만 결말은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어진다.



## 인도네시아 속 작은 대한민국, 한류 통합 상설홍보관 KOREA 360



KOREA 360 이벤트 진행 사진



개관 1주년 기념 행사(ON THE K : 360, 1st Anniversary of KOREA 360) 포스터

**한**류 콘텐츠를 비롯한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 및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류 통합 상설홍보관 KOREA 360은 총괄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하여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총 8개 기관의 협력을 통해 탄생했다.

아세안의 중심이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롯데 몰 자카르타)에 설립해 한류 콘텐츠 및 관련 기업의 아세안 진출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한류확산의 전략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KOREA 360은 2022년 12월 개관 이래 약 140만 명의 방문객들에게 K-POP 콘서트를 비롯한 다양한 한류 문화행사(85건)를 소개하고, K-POP 아티스트,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을 비롯해 뷰티, 생활잡화, 식품, 전통문화, 관광 등 한국을 대표하는 507개 브랜드의 약 6,000개 유·무형 상품을 전시하며 홍보관을 찾는 인도네시아 현지 한류팬들에게 그들의 일상속에서 한국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중이다.

오는 11월(가오픈 기준) 개관 1주년을 맞는 KOREA 360은, 그간 홍보관을 찾은 인도네시아 한류팬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고 보답하기 위해 개관 1주년 기념 행사(ON THE K : 360, 1st Anniversary of KOREA 360)를 개최한다.

개관 1주년 기념 행사는 11월 18일(토), 오후 2시 KOREA 360(롯데 몰 자카르타), Main Atrium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본 행사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는 K-POP 아티스트 두 팀(에이핑크, 미래소년)을 초청해 인도네시아 한류팬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과 팬미팅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인도네시아 한인공동체의 기록 2020~2023(2)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인도네시아 한인공동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큰 위기를 넘기고 2022년 말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행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한인공동체도 활기를 찾는 모습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 기간에 한인공동체의 활동을 한인뉴스, 연합뉴스 및 데일리인도네시아 등의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해 두 번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2021년 10월22일 한복-바틱 패션쇼.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자체 유튜브 채널(KCCIndonesia)을 통해 10월 22일 《한복과 바틱의 만남》을 주제로 한 한복-바틱 패션쇼를 생방송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청주 초정행궁 무대와 자카르타 무대에서 교차로 진행됐다.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 씨와 바틱 디자이너 노비타 유누스(Novita Yunus) 씨는 각각 전통 한복과 바틱 의상과 더불어 한복과 바틱을 콜라보한 의상을 선보였다.

### 2021년 11월26일 발리 주재 대사관 분관 정식 개관식... “영사서비스 강화”

세계적 관광지인 발리에 한국대사관 분관이 11월 26일 정식으로 개관식을 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발리 분관은 올해 3월에 업무를 시작했지만, 현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개관식을 연기했다. 한국 외교부는 “발리 분관의 본격적인 활동에 따라 앞으로 발리 및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 내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2021년 11월26일 [한인회장선거] 박재한 한인회장 연임 확정

2021년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이사회 임시총회가 11월 26일 자카르타 리즈칼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한인회장 선거가 실시돼 박재한 한인회장이 재선됐다. 박재한 회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직을 수행한다. 박재한 후보는 정견 발표에서 신뢰와 의지가 되는 한인들의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며, 이번 코로나 시국에서 절실했던 ‘한인 전담 의료 시스템 구축’ 과 ‘인도네시아 속의 한인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 2022년 10월10일 6년만에 자카르타 찾은 해군 순항훈련전단...인니서 위용과시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77기 사관생도를 포함해 460여 명의 장병 등으로 이뤄진 순항훈련전단이 10월 10일(현지시간) 해군의 첫번째 훈련함인 한산도함(ATH·4천500t)과 군수지원함 대청함(AOE·4천200t)에 승선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자카르타를 찾은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1954년 시작해 올해로 69회째인 해군 순항 훈련은 장교 임관을 앞둔 해사 4학년 생도가 대상이다. 순항훈련전단은 인도네시아 해군과 친선 교류 활동, 교민들을 위한 함상 리셉션, 순다해협에서 인도네시아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 2021년 4월 훈련 중 침몰해 순직한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낭갈라함 승조원들을 추모하는 해상 헌화도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계속]

### 2022년 12월 7일 한인회 송년의 밤

2022년 한인회 송년의 밤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대면행사 본격 재개를 알리는 행사였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박재한)는 12월 7일 자카르타 스나얀에 위치한 물리아호텔에서 ‘2022 한인회 송년의 밤’ 을 개최했다. 2018년에 이어 4년 만에 열린 ‘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에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박태성 대사와 직원들, 코참 인도네시아 이강현 회장, 지역한인회장들을 비롯한 한인사회 각 단체장들, 사전에 행사 참가를 신청한 한인동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 2023년 1월 10일 ‘2023년 신년인사회’ 개최

‘2023년 신년인사회’ 가 1월 10일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대면행사로 열렸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로 부임 후 첫 공식 석상에 오른 이상덕 대사는 “부임하기 전 지침서가 될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 를 3일만에 완독했습니다” 라며 “훌륭한 ‘인도네시아 한인사100년사 편찬에 수고해주신 편찬위원들과 한인사회 원로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말했다.





### 2023년 1월30일 한-인니 수교 50주년 민관 실행위원회' 출범

2023년 대한민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40여 건의 주요 행사를 추진할 '민관실행위원회'가 2023년 1월 30일 출범했다. 한-인니 수교 50주년 주요 행사는 △3월, 홍보대사 위촉식 및 영상 촬영 △4월, 한-인니 1.5 트랙 관계 발전 포럼 △5월, 매경인도네시아 포럼 △6월, 코리아헤럴드 경제 문화 포럼 △9월, 수교기념일(9월18일) 리셉션 등이 계획됐다. 또한 △한-인니 미담사례 발굴 △문화행사 △코리아 트래블 위크 △아리랑TV K-Pop 콘투어 △한-인니 국제세미나 △K-Pop 콘서트 △영화제 △한인 50년사 인니어본 출간 △한-인니 우정의 레이스 △태권도 시범단 공연 △K-Food 홍보대전 △페막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2023년 3월9일 '땅그랑반튼 코리아 페스티벌 2023' 개최

인도네시아 땅그랑-반튼 한인회(회장 채만용)가 오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땅그랑 까라와찌 소재 맥스몰에서 2023년 코리안 페스티벌(Korea Festival)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인도네시아에 한국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인이 함께 기획하고 진행했다. 코리아 페스티벌은 지난 2018년 처음 열렸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다가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비빔밥 퍼포먼스를 비롯해 진주 교방춤, 선반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k-pop댄스 등 한국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다양하게 선보였으며, 어린이 사생대회, 삼양 불닭면 빨리먹기, 어린이 k-pop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나흘간 이어졌다.

### 2023년 1월29일 코참, 2023년 신년회 '상공인의 날' 열려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코참, KOCHAM)는 2023년 신년회 겸 '상공인의 날' 행사를 지난 1월 13일 자카르타 다마이 인다 골프장에서 개최했다. 코참은 1991년 한인회 산하 상공분과 위원회로 출발해, 2022년 7월 코참 제6대 회장단이 출범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량 있는 해외 경제단체로 현재 240개의 회원사가 있으며,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 2023년 2월23일 재인니한인회로 모인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전달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박재한)는 2월 23일, 지역한인회를 포함한 각처에서 모인 성금 12억3,224만 루피아를 주인도네시아 튀르키예대사관에 전달했다. 2023년 2월 6일 발생한 규모 7.8/7.5 2차례 지진을 시작으로 열흘 넘게 여진이 이어졌다. 2023년 2월 20일 파악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사망자 수는 41,020명, 시리아 지진 피해 사망자 수는 5,900명이다. 부상자 수는 양국 합계 1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됐다.

### 2023년 3월16일 인도네시아 위안부 처소에 태평양 전쟁 희생자 추모공원 착공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한인회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3월 16일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스마랑 암바라와 지역에 '태평양 전쟁 희생자 추모비 및 추모 공원' 착공식을 진행했다. 일본군은 1942년 3월 인도네시아 자바섬을 점령했으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식민 지배 시절 축조한 스마랑의 암바라와성을 점거, 포로수용소와 군부대 등으로 썼다. 또 암바라와성 문밖에 축사 같은 위안부 처소를 만들어 인도네시아까지 끌려온 조선인 위안부 등을 '성노예'로 부렸다.



이곳에서는 일본군에 항의하다 끌려온 조선인 군속 10명이 혈서를 쓰고 항일결사 ‘고려독립 청년당’ 을 조직한 뒤 무기고를 탈취, 일본군에 저항하다 끝내 자결하는 일도 있었다.

### 2023년 4월25일 재인도네시아 경남도민회,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 기탁

경남도는 재인도네시아 경남도민회 전·현직 회장단이 도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이날 도청을 찾은 재인도네시아 경남도민회 제경중 회장과 김주철 초대회장은 각각 고성군과 하동군 출신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가 및 한인회 활동을 하고 있다.

### 2023년 5월27일 민주평통, 통일 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인도네시아 지회(지회장 이세호)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에서 제7회 통일 골든벨 @인도네시아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4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 39명이 참여한 인도네시아 대학생 대회와 인도네시아 거주하는 한국 고등학생 대회가 각각 진행됐다. 인도네시아 대학생 부문 우승자 디아나 울란다 리(25) 씨는 “남북한이 결국은 통일될 것으로 생각한다” 라며 “다만 그 방법은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이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 2023년 6월5일 재외동포청 출범

재외동포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이 6월5일 공식 출범했다. 인천 송도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 여러분은 모국과 동포 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과 국력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 이라며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2023년 6월16일 2023 JIKS 인도네시아 데이

‘2023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인도네시아의 날’ (2023 JIKS INDONESIA DAY) 행사가 6월 16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이선아)에서 열렸다. JIKS는 Indonesia Day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나아가 두 나라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며 모두가 화합의 장으로써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 2023년 8월14일 서경덕, 인도네시아 내 한국 독립운동 알린다...영상·안내서 공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KB국민은행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8월14일 공개했다. 또한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제작된 안내서 1만부를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는 인도네시아 내 반일 독립운동단체인 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와 의거지, 인도네시아 암바라와에 있는 민영학 순국지 등을 소개한다.



### 2023년 8월 15일 한인회 골프대회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박재한)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골프대회를 (PIK)에서 개최했다.

### 2023년 8월 17일 우정의 체육대회(배드민턴, 축구)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박재한)는 양국 국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인 지난 8월 17일에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에서 개최했다.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선수단이 배드민턴과 축구 친선경기를 펼쳤다.

### 2023년 9월 5일 윤석열 대통령 재외동포 만찬 및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은 9월 5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첫 일정으로 동포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역사회를 지원해 한국의 상부상조, 또 인도네시아의 ‘고동로용’(Gotong Royong) 정신을 보여줬다”며 “인도네시아의 모범적인 공동체로 자리매김한 2만5천여 동포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고동로용’은 인도네시아어로 ‘함께 어깨에 짊어진다’는 뜻이다.

### 2024년 9월 18일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리셉션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리셉션이 9월 18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주최로 수도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밤방 수사티요 국민협의회(MPR) 의장을 비롯해 무티야 하피드 하원외교위원장 등 인도네시아 정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 2023년 9월 18일 인도네시아어 책 <한-인니 우정의 50년 여정> 출간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류 역사와 인도네시아 속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한-인니 우정의 50년 여정>이 9월 21일 출간됐다. 인도네시아어 책 제목은 “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Merajut Persahabatan dan Memupuk Kepercayaan”)이며 인도네시아어판이다. 한국인은 19세기말부터 인도네시아에 다녀갔지만,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수교를 맺은 해는 1973년이다.

### 2023년 9월 24일 플로깅 행사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쓰담쓰담 그린 런’ 행사가 재인도네시아한인회와 KT&G상상univ. 주최로 9월 24일 자카르타 수디르만 거리와 봉까르노경기장(Gelora Bung Karno, GBK) 주변에서 열렸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과 건강을 함께 챙기는 이벤트를 일컫는다.

# 해피피플, KT&G복지재단과 함께 인도네시아 보고르 아난다 초등학교 신축교사 준공



인도네시아 보고르 아난다 초등학교 신축교사  
준공 세레모니 컷팅식 진행

지난 25일, 해피피플(이사장 박희)은 KT&G복지재단(이사장 민영진)과 10개월간의 공사 끝에 보고르 소재 아난다 초등학교 신축교사 준공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신축교사는 KT&G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초등학교 중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선정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며 선정된 아난다 초등학교에는 컴퓨터교실, 도서관, 과학실은 물론 9개의 교실이 구비된 최신 건물로서 현지 사정을 고려해 내진 설계와 학생들을 위해 야외화장실을 추가로 건축해 편리성도 갖추었다고 한다.

세레모니에는 KT&G복지재단 민영진 이사장과 이사진, 해피피플 조재현 이사,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인도네시아교육청, 아난다 초등학교 학부모대표단, 샤를리 이사장, 페라 교장과 초등학생 13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한 내외빈 못지 않게 현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인도네시아 메트로 TV, 하리안SIB, 인도네시아보이스 등 자카르타 및 보고르 지역방송사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었다.

행사에 참석한 보고르교육청, 학교관계자, 학부모대표는 축사와 감사 인사를 통해 아난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었고 KT&G복지재단 민영진 이사장은 축사에서 교육을 통해 미래의 변화를 이끌고, 더 좋은 세상을 만



보고르 아난다 초등학교 신축교사 2층 컴퓨터실 내부

들어 간다고 믿는다. 새롭게 태어나는 아난다 초등학교의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미래의 리더로 거듭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사를 전했다.

해피피플 박희 이사장은 올해 KT&G복지재단과 베트남 뉴엔탄 초등학교 리모델링, 인도네시아 아난다 초등학교 신축교사 건립은 물론 순차적으로 해외봉사단 파견을 통해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속에서 공부하고 서로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했으며 사업의 취지를 밝히고 내년에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해외봉사단 파견과 사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아난다 초등학교 신축교사 건립을 통해 그동안 한 건물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했던 열악한 교육환경 해소는 물론 질적으로 향상된 컴퓨터 교육, 과학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해피피플과 KT&G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피피플은 인도네시아는 물론,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의 동남아시아는 물론 케냐, 남미 등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특정분야 협의지위를 부여 받은 국제구호개발 NGO단체로서 UNSDGs(지속가능개발목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 한-아세안 문화·예술 교류 프로젝트 'KONNECT ASEAN' 예술품 기증식 개최



KONNECT ASEAN 예술품 기증식



은 양측 문화 교류의 상징으로서 ASEAN 사무국에 기증된 것이 매우 뜻깊다고 하였다.

또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맥락 하에서 문화 분야는 한국과 아세안간 협력 강화에 있어 주요 분야이며, 상호 우호 증진을 심화해왔다고 언급하였다.

2023.10.16.(월) ASEAN 사무국에서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으로 아세안 재단(ASEAN Foundation)이 시행하고 한국 외교부와 ASEAN이 후원하는 '커넥트 아세안(KONNECT ASEAN)' 사업의 예술품 기증식이 개최되었다.

커넥트 아세안 사업은 한-아세안 문화·예술 교류 프로젝트로서, 2020년 시행 이후 한국과 아세안 국가 출신의 16명 작가들이 참여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넓혀왔다.

이장근 주아세안대사는 축사를 통해, 커넥트 아세안이 한국과 아세안 예술가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는바, 동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15개 작품들

예카팜 판타봉 ASEAN 사회문화사무차장은 예술을 통한 아세안과 한국의 교류 확대는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며, 앞으로도 동 분야 협력을 위한 양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해 1990년 조성된 국제기구 분담금 형태의 한국정부 공여금 / 동 기금을 활용하여 공공보건, 교육훈련, 문화관광, 경제, 환경, 재난관리 등 제반 분야의 한-아세안 양측이 합의한 사업을 선정, 지원 중  
- 1990-2022년 누적 공여액 약 1억 5,300만불 (약 420여 건의 협력 사업 이행)

(제공: 주아세안대표부)

# 한-아세안 뮤직 페스티벌, ROUND 2023

10.21.(토)-22.(일) 자카르타에서 성황리에 개최

2021.10.21.(토)-22.(일) 한-아세안 협력기금 (AKCF)\*으로 KBS가 주관하고 한국 외교부와 ASEAN이 후원하는 「한-아세안 뮤직 페스티벌 ROUND 2023 in Indonesia」가 자카르타 Ancol Beach City International Stadium에서 개최되었다.

동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및 2021년 온라인으로 두 차례 개최된 이후 금년 처음으로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서 대면 개최되었으며,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뮤지션 18개 팀이 참여하고 1만여명 이상이 관람하는 가운데 음악을 통한 한국과 아세안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제공하였다.

이장근 주아세안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맥락 하에서 음악을 포함한 문화 분야는 한국과 아세안간 협력 강화에 있어 주요



분야이며, ROUND 2023 페스티벌이 한-아세안의 문화적 결속을 도모하며 파트너십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까오 김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 힐마르 파리드(Hilmar Farid)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총국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달하였다.

(제공: 주아세안대표부)





## 나의 진정한 힐링 공간: 나에게 위로와 원동력을 준 존재들

글: 루이사(한국문학번역가)

한국 문학 번역가로서 <루이사의 힐링 공간> 시리즈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독서, 그리고 연극과 뮤지컬 같은 공연을 보는 것이 나에게 힐링이어서 5편의 칼럼은 내가 번역하거나 읽은 책, 그리고 내가 관람한 공연들 주제로 썼다. 하지만, 나에게 진정한 힐링은 따로 있다. 내가 힘들 때 위로를 주고 내 원동력이 되는 나의 아이돌, 세븐틴이다. 지난 2월 재외동포재단 통신원리포트 인터뷰에도 언급했지만 나는 ‘세븐틴’의 팬이다.

내 주변에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 당연히 한 아이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시선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 ‘나이가 몇인데 아이돌을 좋아하니?’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면 좀 그렇다’ 라는 사람들도 한 두 명이 아니다. 과연 아이돌을 좋아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일까? 나 같은 거의 30대가 되는 사람은 아이돌을 좋아하면 안될까? 나도 고민을 해보았다.

요새 SNS 상에 자주 나오는 주제는 바로 ‘정신 건강(mental health)’이다. 특히 MZ세대는 정신 건강을 중요시하고 육신 건강과 함께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일상 생활에 시행하고 있다.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수많은 방법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에게 행복과 위로를 준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요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독서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누우면서 드라마를 보고, 나 포함한 여러 사람들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으로 행복을 찾는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찾는 방법이 다르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이상 어떤 방법이든 괜찮다고 생각한다. 스트레스 받을 때 놀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집에서 누워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사람도 있듯이 우리는 모두 달라서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찾는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봐선 안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돌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잊을 수 있고 인생을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세븐틴이 11번째 미니앨범으로 컴백하였다. 수록곡 중에 <하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널 미워하지마 / 좋은 선택이었단 걸 너도 알잖아 / 그렇게 아픈 걸 말도 못 하고 / 혼자 끄꿇  
됐을걸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 / 넌 나의 숨이니까 / 미안해하지 마 / 그냥 모자람에 나오는 하품 같  
은 거야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마주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선택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 후회는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몸에 산소가 부  
족할 때 나오는 하품처럼 이 불행도 잠시일 뿐, 너무 자책하지 않고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된다고  
이 가사를 해석해보았다.

아이들은 화려하고 꾸며지는 세상과 더 가깝지만 그들의 꾸밈없는 모습도 찾을 수 있다. 에너  
지 넘치고 템포가 빠르고 춤이 어려운 노래가 있는 반면, 잔잔하면서 솔직하고 순수한,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가사를 가진 노래도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 위로도 받고 세상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결국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은 노래와 춤을 사랑하고 큰 꿈을 함께 이루고 싶은 13명의 청년들  
이고 그들의 노래로 인해서 나도 위로를 받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쉬지 않고 계속 바쁘게 돌  
아가는 이 시끄러운 세상에는 잠시라도 쉬어 갈 수 있는 나만의 힐링 공간을 찾는 것도 좋다.  
여러분의 진정한 힐링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언제라도 난 여기서 있어 편하게 생각해도 돼  
*'Cause I'm your home, home, home, home*  
네가 올 수 있는 곳, 네가 올 수 있는 곳  
(세븐틴, <홈> 가사 중에서)



## ‘인도네시아를 사랑한 화가’ 김현경 솔로 전시회 ‘Leaving Indonesia, BLESSING’ 개최

박승현

(ACS Jakarta, G9)



<너는 나>

10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자카르타에 위치한 d' gallerie에서 김현경 작가의 솔로 전시회에 ‘Leaving Indonesia, BLESSING’ 이 열렸다. 오픈 갤러리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양수려 EBS 전 아나운서의 기획으로 진행되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 자카르타에 있는 교민 뿐 아니라 발리와 족자, 땅그랑에 거주하는 교민들 또한 방문하며 하루 종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에서 만나다

한인뉴스  
 HANCINEMA



본지 2023년 1월호에 표지를 장식한 김현경 작가의 그림 <행복>



김현경작가와 박승현 학생

발리에서 활동하는 김현경 작가는 캔버스가 아닌 세 번, 네 번 배접한 한지 위에 동양의 재료를 수차례 쌓아 색의 입체감을 만드는 화가로 유명하다. 김현경 작가가 작품 요소요소에 깔아놓은 인도네시아 일상을 감상하다 보면 작가의 유머와 은밀한 이야기, 우리의 일상을 작품 안에서 만나게 된다.

김현경 작가는 인터뷰에서 “나에게 그림은 나를 설레게 하는 것들과 그것들의 살아있음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그 속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이야기를 담는다. 다른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놓친 것들을 내 그림을 통해 다시 찾아주길 바란다. 내 그림을 보는 이들도 나와 같은 것을 느끼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행운이 나에게 있기를 바란다” 고 얘기했다.

전시회 명 ‘Leaving Indonesia, BLESSING’ 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는 하루하루가 김현경 작가에게 ‘축복’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리에 거주하며 동양 소재로 인도네시아적 그림을 그리는 김현경 작가는 일상의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작품으로 옮겨와 방문객들에게 감동으로 선사했다.

양수려 전시 기획자는 “김현경 작가의 작품은 온화하고 따뜻하지만 힘이 있다. 한지에 분채, 석채, 금니, 은분을 겹겹이 쌓고 또 쌓아 올려 오묘한 입체감을 내는 작가의 작품은 흡사 그녀의 내공과 닮아있다. Leaving Indonesia, BLESSING 전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전시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면, 그리고 마음에 기억되는 전시가 된다면 바랄 게 없겠다.” 고 말했다.



## 위조 상품에 대한 대응(5)

(전호에서 계속)

\*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20호 제99조 2항에 규정한 민간인 공무원 수사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상표 분야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고발 또는 설명에 대한 사실성을 검토한다.
2. 피고소자 또는 피고발자를 조사한다.
3. 상표 분야 범죄 관련자에게 조사 및 증거를 요구한다.
4. 상표 분야 범죄와 관련된 장부, 기록 및 서류를 조사한다.
5. 상표 분야 범죄 증거물인 장부, 기록 및 기타 문서가 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수색 및 조사를 한다.
6. 상표 분야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재 및 물품을 요구한다.
7. 상표 분야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한다.
8. 상표 분야 범죄자에 대한 체포, 구속, 수배 및 출국금지 조차를 관계기관에 요청한다.
9. 상표 분야 수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수사 중단 결정을 한다.
10. 그 외에도 수사 시 민간인 공무원 수사관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경찰수사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4). 민간인 공무원 수사관은 수사 개시를 경찰수사관에게 통보해야하며 경찰수사관은 민간인 공무원 수사관의 수사 개시를 검찰에게 통보해야한다. 민간인 공무원 수사관의 수사 결과도 경찰수사관을 통해 검사에게 이첩해야 한다.

### 7. 온라인 시장 유통 위조 상품에 대한 대응

가. 약 2억 7천 5백만 명의 인구에 약 18,000여개의 점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산업의 잠재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Ernst & Young

의 분석 데이터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비즈니스 매출가치가 매년 40% 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9,340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와 7,100만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 검색과 채팅뿐 만 아니라 대도시 사람들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수천만 명의 중산층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를 계속 성장시키는 이유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존재는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세계(온라인)에서 상품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사고 파는 관행을 만들었으나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 위조 또는 불법상품이 무책임한 당사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쉽게 유통되고 거래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및 위조 상품의 유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당연히 소비자에게 다양한 위험이 발생한다. 전자상거래에서 위조품이 유통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에서는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며, 둘째, 위조신원으로 또한 사기성 거래자들이 위조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며, 셋째,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 처리 또는 구매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결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 팔고 있는 위조 상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소비자, 전자상거래 플랫폼보유자, 정보통신부(“Menkominfo”), 경찰과 법무부 지식재산권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나 현지 실정은 아직은 온라인 위조 상품 판매를 막으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 위조 상품에 대한 상표권 보유자는 경찰이나 법무부 지식재산권청에 형사고소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일 것이다. 온라인 유통 가짜상품에 대한 대응책이나 오프라인 유통 가짜상품에 대한 대응책은 대동소이하다.



## 8. 상표등록 취소 판례

대법원 판결 번호 : 619K/Pdt.Sus-HKI/ 020년 6월9일자. 등록 상표 취소 소송 관련 사건은 2020년 1월 13일 자카르타상업법원에서 상표 RUFF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 판결이다.

가. 사건 개요

-원고 : 스페인에 적을 둔 스페인 회사 Original BUFF S.A.

-피고 : Jemmy Setiyuwono 씨, 인도네시아 국민, 동부 Jawa주 Surabaya시 Gembong Sawah 로 06 번지

(1).피고인 Jemmy Setiyuwono 씨가 2011년 6월 13일 “RUFF” (25류) 상표를 법무부 지식재산권청에 등록하다

(2). “BUFF” (25류) 상표권 보유자인 원고인 Original BUFF, S.A.가 Jemmy Setiyuwono 씨에 대하여 RUFF 상표 등록 취소소송을 청구하다. 원고인 Original Buff, SA는 스페인의 법률에 따라 섬유 생산 업체 “Joan Rojas”가 1992년

에 설립 한 회사로, 스페인의 Franca, 16, 08700 IGUALADA (바르셀로나)에 소재하고 있으며, 독일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에 있는 자회사는 Buff GMBH, 미국에 있는 Buff Inc, 캐나다에 있는 자회사는 Buff Canada Ltd.이며 영국에 있는 자회사는 Buff UK Ltd. 로서, 원고는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 제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이며 등록 상표 “BUFF”의 소유자이다.

원고 회사가 설립된 1992년에 BUFF 브랜드와 함께 다기능 및 유연한 관형 헤드 커버, 스포츠 및 운동복, 셔츠, 스카프, 목도리, 신발, 모자 및 자외선 차단 모자에 대한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상표 등록은 BUFF 브랜드가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원고가 수행했다.

원고의 주요 제품은 극한의 추위, 바람 및 태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기능 관형 헤드 커버였다. 추가 정보는 원고의 웹 사이트 <https://www.buff.com/> 및 <https://buffindonesia.com/>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웹 사이트는 ORIGINAL BUFF S.A.의 디스트리뷰터인 PT.(주식회사)SKELLY INDONESIA가 관리했다. 또한 원고의 상표 BUFF는 제품이고 품질이고 혁신적이며 환경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때문에 좋은 평판을 얻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수여 된 표창 및 수상으로부터 입증될 수 있다.

(가). 2005년에 원고의 BUFF 제품은 ISPO AWARDS 2005를 수상했다. 이는 BEST RUNNING ACCESSORY <https://outdoorindustry.org/press-release/buff-wins-runners-old-ispo-award-for-best-running-accessory/>를 보면 알 수 있다.

(나). 2007년 원고의 BUFF브랜드 제품은 GEAR JUNKIE AWARDS, GREATEST GEAR OF 5YEARS를 수상했다. 이는 <https://gearjunkie.com/greatest-gear-of-5-years>를 보면 알 수 있다.

(다). 2008년 원고의 BUFF브랜드 제품은 AMERICAN ALPINEINSTITUTE.USA로부터 GUIDER 's CHOICE AWARD를 수상했다. 이는 <http://blog.alpineinstitute.com/2008/08/aai-guides-choice-aadwinners>를 보면 알 수 있다.

(라). 2011년에 원고의 BUFF 브랜드 제품은 INTERNATIONAL FLY TACKLE DEALER로부터 BEST GENERAL APPAREL AWARD

를 수상했다. 이는 <https://www.anglingtrade.com/2011/08/19/angling-trade-and-mid-crrrent-announce-iftd-product-award-winners/>를 보면 알 수 있다.

(마). 2011년 원고의 BUFF브랜드 제품은 EOCA(유럽 야외 보존 협회)로부터 최초의 보존 챔피언을 수상했다. 이는 <http://outdoorconservation.eu/news-detail.cfm?newsid=49>를 보면 알 수 있다.

(바). 2012년 원고의 BUFF 브랜드 제품은 GEAR JUNKIE AWARDS에서 10년 중 가장 위대한 기어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https://gearjunkie.com/best-gear-of-10-years>를 보면 알 수 있다.

(사). 2014년에 원고의 BUFF 브랜드 제품은 FISH ALASKA MAGAZINE에서 EDITORS CHOICE AWARD를 수상했다. 이는 <https://www.fishalaskamagazine.com/apparel-accessories-2017-ditors-choice-award/>를 보면 알 수 있다.

(아). 2014년에 원고의 BUFF 브랜드 제품은 Backpacker Editors Choice Award를 수상했다. 이는 <http://buffusa.com/life/blog/2014-10-14/wool-buff-receive-rsigious-backpacker-editors-choice-award.html>를 보면 알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2023 임원외비 남부명단

기준 : 2022.12.28 ~ 2023.10.26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000	
2	명예회장	신기업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0	
3	명예회장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I	10,000	
4	명예고문	김우재	PT. KOIN BUMI	5,000	
5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6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5,000	
7	고문	배도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10,000	2022 ~ 2023
8	고문	송창근	PT. KMK GLOBAL SPORT	5,000	
9	고문	신규태	PT. INDO SUNG IL JAYA	5,000	
10	수석부회장	김종현	PT. KOIN BUMI	10,000	
11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12	부회장	강호성	PT. ANUGERAH CITRA MOULD INDONESIA	10,000	2022 ~ 2023
13	부회장	김문수	PT. QUTY KARUNIA	5,000	
14	부회장	김창곤	KODECO ENERGY CO LTD	5,000	
15	부회장	박상갑	PT. VIDEX INDONESIA	5,000	
16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17	부회장	승범수	TSE GROUP	5,000	
18	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5,000	
19	부회장	이우열	BANK KB BUKOPIN TBK	5,000	
20	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5,000	
21	부회장	이정휴	PT. GEE SAN INDONESIA	5,000	
22	부회장	이종남	PT. SINYOUNG ABADI	5,000	
23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5,000	
24	부회장	오인택	PT. BANK IBK INDONESIA TBK	5,000	
25	부회장	하재수	PT. ROYAL PUSPITA	5,000	
26	부회장	황규순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5,000	
27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	
28	자문위원	강희중	PT. SUNG TECHNOLOGY	1,000	
29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30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31	자문위원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1,000	
32	자문위원	김주철	PT. STAR CAMTEX	2,000	2023~2024
33	자문위원	박의태	PT. SKYTAPE INDONESIA	1,000	
34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35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36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1,000	
37	자문위원	이승민	YSM & PARTNERS	1,000	
38	자문위원	이진수	PT. SUNGBO JAYA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39	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1,000	
40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JUNG INDONESIA	1,000	
41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42	이사	강기석	PT. GREEN MEDICA	1,000	
43	이사	강병찬	PT. GLOBAL INDOREKSA ASIA	1,000	
44	이사	강수환	PT. CHAEUM DESIGN	1,000	
45	이사	강윤석	PT. PLATECH MOLD INDONESIA	1,000	
46	이사	길병완	PT. DAEYONG DUNIA SUBUR	1,000	
47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000	
48	이사	김영섭	PT. INDIGO MEDICAL	1,000	
49	이사	김영을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50	이사	김옥준	BSI GROUP	2,000	2022~2023
51	이사	김일태	PT. OROM	1,000	
52	이사	김종성	PT. LAW FIRM INDOYANG & PARTNERS	1,000	2022
53	이사	김형근	PT. GAYA INDAH KHARISMA	1,000	
54	이사	김호권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000	
55	이사	김화룡	PT. BANGUN MAJU LESTARI	1,000	
56	이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1,000	
57	이사	류재철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1,000	
58	이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000	
59	이사	박영진	PT. JUBIT CONSULTING INDONESIA	1,000	
60	이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61	이사	백상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62	이사	서영률	PT. PRATAMA ABADI	1,000	
63	이사	성예식	PT. F1 LOGIX INDONESIA	1,000	
64	이사	손석기	PT. PERKASA INDAH MAKMUR	1,000	
65	이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	
66	이사	안윤근	PT. YONG WOO INTERNATIONAL	1,000	
67	이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000	
68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69	이사	염정윤	PT. HANSAE INDONESIA UTAMA	1,000	
70	이사	오동훈	PT. FNS TRANSBUANA	1,000	
71	이사	유용선	PT. DAE HWA INDONESIA	1,000	
72	이사	이근대	PT. DONGBANG	1,000	
73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74	이사	이성삼	PT. LIGA SEJATI SEJATRA	1,000	
75	이사	이소왕	PT. DOOWANG INDONESIA	1,000	
76	이사	이옥찬	PT. KORINA SEMARANG	1,000	
77	이사	이완주	PT. PERTIWI INDO MAS	1,000	
78	이사	이지완	PT. JIN YOUNG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79	이사	이지현	PT. ZIMMOAH MARINE TRANS	1,000	2022
80	이사	이한주	PT. SAJI SEGAR LESTARI	1,000	
81	이사	장영관	PT. LAYCO	1,000	
82	이사	정창섭	PT. DAEWOO LOGISTICS ASIA	1,000	
83	이사	정태영	PT. GANGSAN GLOBAL MARKETING	1,000	
84	이사	조용재	PT. FOOD KOREA INDONESIA	1,000	
85	이사	최재혁	PT. INDO BUMI LESTARI	1,000	
86	이사	최재희	PT. STONE CANYON INDONESIA	1,000	
87	이사	최제동	PT. CMS CHEMICAL INDONESIA	1,000	
88	이사	최태립	PT. INTERNAT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	1,000	
89	이사	표기훈	PT. HIT	2,000	2022 ~ 2023
90	이사	현경원	PT. HANA HOLIDAY	1,000	
91	이사	황의상	PT. SEPULUH SUMBER ANUGERAH	1,000	

## 2023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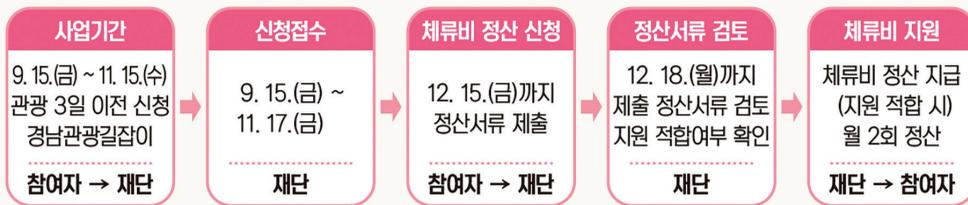
번호	성명	금액(IDR)	번호	성명	금액(IDR)	번호	성명	금액(IDR)
1	김중훈	300,000	20	김성진	300,000	39	No Name	500,000
2	이정휴	300,000	21	주용석	300,000	40	김호권	500,000
3	박주상	300,000	22	임경미	300,000	41	No Name	500,000
4	최석일	300,000	23	강명도	1,505,236	42	박수덕	300,000
5	박성호	300,000	24	임원빈	300,000	43	김경희	300,000
6	김옥준	300,000	25	오세명	300,000	44	NO NAME	500,000
7	채만용	300,000	26	정사무엘	300,000	45	이희은	300,000
8	김윤경	300,000	27	최혜진	300,000	46	이승현	300,000
9	안진호	300,000	28	강호성	300,000	47	이영신	300,000
10	김영울	300,000	29	No Name	500,000	48	No Name	500,000
11	조용재	300,000	30	이성재	300,000	49	안윤근	300,000
12	김창근	300,000	31	구종울	300,000	50	김화룡	300,000
13	김대근	300,000	32	정창섭	300,000	51	석웅치	360,000
14	서정현	300,000	33	이우열	300,000	52	마영희	360,000
15	석웅치	300,000	34	정순	300,000	53	NO NAME	500,000
16	김희순	300,000	35	이성용	300,000	54	이진수	300,000
17	이지선	500,000	36	이현용	300,000	55	NO NAME	500,000
18	문해정	3,000,000	37	No Name	500,000	56	김만선	300,000
19	김영실	300,000	38	장영관	300,000			

## 2023 재외동포 경남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 모집

재외동포 대상 경남 체류형 여행 기회 제공을 위한 「재외동포 경남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모집개요

- 사업기간** 2023. 9. 15.(금) ~ 2023. 12. 15.(금)
- 참여신청** 2023. 9. 15.(금) ~ 2023. 11. 15.(수)까지
- 모집대상**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40명
- 지원내용** 경상도 내 7일 이상 관광체류 재외동포 체류비 지원
- 지원방법**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기준에 따라 체류비 지급 정산
- 지원절차**



### 참여신청

- 신청기간** 2023. 9. 15.(금) ~ 2023. 11. 15.(수)  
※ 기한 내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마감
- 신청방법** 경남관광길잡이(tour.gyeongnam.go.kr) 신청서 작성(구글폼 활용)
- 신청내용** 성명, 국적, 연락처, 여권번호, 체류기간, 지원신청항목 등



### 지원내용

- 지원조건** 사전신청 및 지원기준 충족, 여행후기 SNS 게시
- 사전신청** 2023. 11. 15.(수) 기한 내, 관광시작 3일 전 신청(필수)
- 지원기준** 경상도 내 7일 이상 체류 ※ 경남 외 숙박시설 및 미등록 숙박시설 투숙 지원 불가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한화(KRW) 50만원
- 지원항목** 도내 체류기간에 따라 상이
- 7일 이상** 픽업·샌딩서비스, 여행자보험, 의료비, 숙박비, 입장료, 체험비, 식비
- 7일 미만** 픽업·샌딩서비스





항목	세부내용	비고
픽업·샌딩서비스	OTA 픽업·샌딩서비스, 콜택시 및 콜밴 서비스	차량렌트 미지원
여행자보험	신청(체류)기간 내	보험가입기간 기준 일할 정산
의료비	종합건강검진 비용	종합건강검진 외 미지원
숙박비	실비 정산	도내 영업장, 본인 사용분
관광지 입장료	"	"
체험비	"	도내 영업장, 본인사용분 * 1인 1일 8만원 이내
식비	"	도내 영업장, 본인사용분 * 1인 1일 3식 이내

**공통사항** : 도내 숙박업소\* 투숙 증빙은 모든 지원항목 필수

\*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 제2조제1항 각호의 숙박업소 투숙자에 한 해 지원 가능

**항목별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 픽업·샌딩서비스(공항 ↔ 도내)에 한 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제출서류** 7일이상 도내 체류 증빙서류 및 항목별 결제 영수증

**증빙서류** 신청자 본인 숙박업소 투숙 영수증(인보이스+결제영수증) 및 지원 항목별 결제영수증(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서)

**지원제외** 경남관광길잡이(tour.gyeongnam.go.kr) 공고 확인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	361)445	5037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신문화원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쥬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중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미란스화장품	723	1537

변호사 이응



**인니 거주자/비거주자 관련 세무 소송 전문  
대한민국 법원 비거주자 판정 다수 승소 경험**

**변호사 약력**  
 1989 서울대 입학  
 1997 사법시험 합격 (39회)  
 2000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  
 2023 현재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 (파트너)

**법무법인 새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4층 (서초동, 케이원빌딩)  
 T. (한국)+82-10-3051-3670  
 (인니)+62-857-7577-1114  
 E. sabub89@hotmail.com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항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 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짜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짜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끌라빠가당점	453 3624
무궁화 짜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뿔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뎀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딴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꼬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썸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독뽕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홍대포차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실악추어탕2(끌라빠가당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감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woori**

#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뎀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땅그랑)	2909 3454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웅대리 (SCBD)	021-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예원	021-7212-0533
찬찬	0812-1060-4848
숙달	0821-4007-7256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홍콩반점	0812-2442-6092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유타키투아라안경원	5793 796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람)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	1415	7581
가당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	8051	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u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021) 2245 5879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종교 단체**

<기독교>

-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 자카르타 중앙 교회  
(어성호) 0813-8103-9768
-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 찌뜨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반 등**

- 반등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 반등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 반등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 반등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 스마랑/족자**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단&발리**

- 메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갈리만탄**

-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 승문고(김영언) 0816 937 269
-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 진주 대야고(김영진) 5522 0041
-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짜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재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승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에물셋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HP. +62-816-873-176, +62-816-1390-333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E-mail. 3sppearl@hanmail.net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82-10-5509-7751, +82-10-9824-8857

##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 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0812-1960-308 ]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발리한인회 [ 0822 1996 3355 ]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3	반둥한인회 [ 022) 200-2154 ]	회장	김 은 수	0812-8811-1733
		사무차장	김 동 영	0811-2188-855
4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5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6	메단한인회	회장	홍 재 권	0812-8219-8638
		총무	안 의 현	0811-610-3332
7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 031) 568-8690 ]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 024) 7648-2020 ]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10	족자카르타한인회 [ 0274) 497-761 ]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1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3	마카사르슬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4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5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16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축하합니다



百年顧客



hotelfacilities



Borobudur Grand Ballroom



Rama Ballroom I



Shinta Ballroom II



Meeting Room 1-V



Fitness Club



Driving Range



Garden Brasserie



Bunker Cafe



Coffee Shop



Business Center



Pool Bar



PUB



Swimming Pool



Restaurant



Sauna & Spa



Money Changer

Java Palace Hotel

Jl. Niaga Utara Kav. 1-2  
Jababeka II

Cikarang - Jawa Barat  
17530 Indonesia

reservation@palacejava.com

Telp: (62-21) 29281111

Fax: (62-21) 29287300

✉ : info@palace.co.id

Benefit

혜택

- 고주몽을 포함한 자바팔레스호텔내 식음료 할인
  - 15% 할인 주류 포함
- 자바팔레스호텔스파
  - 마사지 20% 할인
- 자바팔레스호텔골프연습장
  - 일반가격에서 30% 할인
- 자바팔레스호텔헬스장, 사우나, 스파시설
  - 1년간 무료 이용

자바팔레스호텔객실

- 무료 숙박권 3매 (주말, Superior Room, 조식 2인 포함)
  - 숙박 50% 할인권 2매 (주말, All Room type)
  - 숙박 20% 할인권 6매 (주중 포함, All Room type)
- Seruni Coffee Shop
- 생일 당일 무료 생일 케익 제공 (사전 예약 필요)

Annual Fee  
IDR. 4,500,000 nett

JOIN NOW

